Weekly 공감

2010.12.22 No.90
gonggam.korea.kr

2011년 경제정책
다 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경제 p20~27

출범 1년 미소금융, 성과와 과제 p14~15

어린이 자립 돕는 '디딤씨앗통장' 홍보대사 오상진 p52~53

국민 소통혁명 이끄는 소셜미디어 파워 p29~45

通하라! '소셜미디어'

트위터 2백30만명, 페이스북 2백50만명, 미투데이 4백만명. 현재 가장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의 국내 사용자 수로, 이 숫자는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소셜미디어는 개인과 기업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도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특히 공공기관의 소셜미디어 도입은 단순히 홍보 채널을 하나 더 확보한다는 차원을 넘어 국민, 즉 정책고객과의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소셜미디어 내에서의 '관계'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해낸다. 이 관계를 통해 의견을 수집하고 참여를 이끌어내 정보를 좀 더 신속히 전파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은 소셜미디어 진출을 미뤄선 안 된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정책고객들은 공공기관의 소셜미디어 입성에 호의를 보이고 있다. 개방적인 소셜미디어 성격에 비춰볼 때 언제든 기관의 활동에 자신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는 기회 부여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대다수 공공기관의 소셜미디어 운영 형태를 살펴보면, 관계 구축보다는 단순히 소셜미디어를 만들었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는 것 같다. 그 때문인지 높아만 가는 정책고객들의 기대와 요구를 충족시키기엔 공공기관의 소셜미디어는 고객 지원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홈페이지, 블로그 등 기존 온라인 채널에 비하면 재정 지원도 미미하다.

그렇다면 효과적인 소셜미디어 도입·운영의 묘책은 무엇일까? 우선 트위터나 페이스북, 유튜브, 플리커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 중 각 기관의 목적에 맞는 채널을 찾아야 한다. 운영은 외부 업체에 위탁하기보다는 내부 역량을 강화해 직접 소화하는 것이 좋다. 물론 내부 운영 가이드라인은 필수다.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소셜미디어 활용 패턴을 파악해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공공기관의 소셜미디어 내에서 국민이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기존 웹사이트나 블로그를 소셜미디어와 연동하는 등 소셜미디어 운영을 적극 홍보하는 것도 좋다. 소셜 서비스를 통해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 형성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림으로써 정책고객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지방자치단체 및 하위 기관에 소셜미디어 활용방안과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한 미국이나 영국의 경우처럼 우리 중앙정부의 발 빠른 대응과 대책 마련도 생각해볼 일이다.

강학주
이스토리랩(eStory LAB)
소장

www.nis.go.kr

NIS 국가정보원

우리 가까이 111
국가안보는 생활입니다

행복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111을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의 관심이 국가안보를 튼튼하게 만듭니다.

국가를 지키는 111

간첩, 좌익사범, 테러, 국제범죄, 산업스파이, 사이버안보위협
신고전화 111

Contents

Weekly
2010.12.22
No.90(통권 191호)

표지 이야기

친근한 이미지로 어린이들에게도 인기가 높은 오상진 MBC 아나운서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고 있는 '디딤씨앗통장' 사업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 · 보건복지부

30 일러스트 · 이우정

24

18

Weekly 공감
http://gonggam.korea.kr

발행일 2010.12.22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발행인 유인촌
제작협력 동아E&D
인쇄제본 삼화인쇄(주)
문의 02-3704-9668
정기구독 02-2625-3294

〈Weekly 공감〉에 수록된 내용은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림 이 책을 펼치면 오른쪽 윗부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변환 바코드가 인쇄돼 있습니다.

이 잡지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부 정책을 빠르고 쉽게 알리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는 주간지입니다.

집

사람과 사람의 '단짝' 소셜미디어

스마트폰이 대표하는 모바일 인터넷기기를 기반으로 한 소셜미디어는 사이버 영역으로 인간관계를 확장하고 사회적 이슈에 따라 집단지성을 형성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정책을 홍보하는 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개인적 푸념도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고 기업 최고경영자(CEO), 국가 지도자와도 '맞팔'(트위터 사용자가 서로 '친구 맺기'하는 것) 뜰 수 있는 소셜미디어, '미친' 속도로 진화 중인 소셜미디어의 열풍 속으로 들어가보자.

01 **Reader & Leader** 강학주 이스토리랩 연구소장

30 **총론** 소셜미디어는 이제 글로벌 서비스

32 **소셜미디어 현황** 세계는 지금 SNS와 열애 중

34 **소셜미디어 Q&A** 초보자들이 궁금해하는 '소셜미디어 세계'

36 **기업 비즈니스 활용** 通해야 기업 신뢰 이미지 올라간다

38 **소셜미디어 부작용 대책** '양날의 검' 잘 쓰고 계십니까

40 **공공 부문 소셜미디어 활용** 정책 소통 '스마트'한 공공기관 확산

42 **소셜미디어의 잠재력** 문화콘텐츠 성장, SNS에 물어봐!

44 **선진 외국 사례** "소통하는 국정과 일촌 맺으실래요"

중점기획 **2011년 경제정책 방향**

20 **총론** 일자리 28만 개 만들고 5% 안팎 성장

22 **튼튼한 거시경제** 물가안정 속 경기회복세 잇기 위해 공공기관 주요 사업비 57% 상반기 집행

23 **글로벌한 일류경제** G20 성공 발판, 글로벌 리더 역할 확대

24 **따뜻한 서민경제** 주거·의료·보육 등 서민생활 부담 줄인다

26 **지속가능한 선진경제** 수출·교육·과학기술 등 균형성장

54

59

04 **공감 라운지** 푸른 숲 지켜갈 대학생 모이세요

서울 G20 정상회의

08 **권해룡**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무역국제협력국장 '한강의 기적'이 '서울 개발 컨센서스'로

10 **정병화**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국제협력과장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가속화 합의

12 **이정희**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무역개발과 사무관 '유가 변동성 완화' 공조방안 도출

14 **정책 포커스** 미소금융 1주년… 이젠 찾아가는 '미소'

한미 FTA

16 **이항구** 산업연구원 주력산업팀장 추가협상 내용, 멀리 보고 판단해야

17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비준과 협정 이행 늦어질수록 국익 훼손

18 **포토 뉴스** 2010 광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46 **나눔경영 기업 탐방** 기업 발전의 원동력 '사회공헌활동'

50 **정책 뉴스** 대한민국 미래 이끌 동력 '과학 원천기술'

52 **정책 브리핑** 두 배로 늘어난 '마법통장', 꿈·희망도 '쑥쑥'

54 **스포츠** 이승엽 오릭스 입단… "나를 인정해줘 고맙다"

56 **이 사람** 미국 입양됐다 한국 프로농구 선수 된 김영규 "농구선수로 성공하면 친엄마가 알아보겠죠"

57 **따뜻한 이웃** 서울메트로 당산역 사랑의 쌀독 연중무휴로 운영

58 **저자와의 대화** "IT 코리아 지키려면 IT 생태계 재구성해야"

59 **IT 세상** 7인치? 10인치? '태블릿PC 大戰'

60 **화제의 책**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61 **디딤툰** 글로벌 에티켓 ㉒

62 **사서가 추천하는 책** 〈가족, 당신이 고맙습니다〉

63 **공감 카툰** 파랑새를 찾아서

64 **문화 공감**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명청회화〉展

Weekly 공감 편집실(gonggam@korea.kr)과
홈페이지(gonggam.korea.kr),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 코리아(www.korea.kr),
정책공감(blog.daum.net/hellopolicy),
청와대(www.president.go.kr) 등에
올라온 독자의 편지와 댓글입니다.

〈Weekly 공감〉 89호(12월 15일자) 기획특집 '대한민국, 세계 최대 경제영토 확보했다'와 관련해 많은 독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수고하셨습니다

"'한국은 실리, 미국은 명분, 모두 윈윈'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이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에서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요구 수준이 높아 협상 기간 동안 20차례가 넘는 회의를 했다니 합의점을 찾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고생하셨네요."_ 박진상

"그동안 말 많고 탈 많던 한미 FTA 추가협상이 잘 마무리돼서 다행입니다. 자동차 분야를 양보하고 양돈, 제약, 비자 분야에서 이득을 얻었다고 하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한미 FTA의 체결 자체가 큰 이득이라고 봅니다. 이를 계기로 다른 선진국들과의 FTA도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한미 FTA 비준이 하루빨리 이뤄지길 소망합니다."_이유선

89호 '4대강살리기 / 낙동강살리기 사업, 정당하고 필요하다'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법원에서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니 지역주민으로서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낙동강의 현재 상태를 직접 본다면 사업 반대라는 말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이미 자연 정화기능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낙동강의 상황은 심각합니다. 사람이 아파서 수술이 필요한데 못하게 막을 수는 없죠. 수술이 잘못될 가능성이 있다 해도 살기 위해선 수술이 불가피합니다.
낙동강의 수술을 앞두고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됐고 법원의 안전성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_김정춘

89호 '경제영토 넘버원 코리아' 기사를 보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기사를 보고 어렵던 우리 경제가 이제 돌파구를 마련해 내년에는 더욱 안정되고 내실을 다져갈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전히 신용등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국가경쟁력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10위권이며 무역흑자와 수출도 사상 최고조에 달하리라 기대됩니다."_박옥희

89호 '이 사람 / 낮엔 공무원, 밤엔 야학교사 경기도청 이현호 씨' 기사를 읽고 독자가 보내온 의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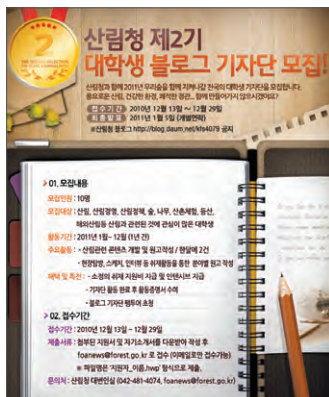
"배움의 길은 언제나 소중하고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일은 더 소중하고요. 민생현장에서 국민의 발과 손이 돼주기도 힘든데 야학으로 희생과 감동을 주다니 존경스럽습니다. 국민과 정부를 잇는 공무원들의 역할은 국가 운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나눔과 봉사의 정신을 실천하는 공무원들이 더욱 늘어났으면 합니다."_서정욱

경제영토 '넘버원' 코리아

"배움의 길 열어주는 보람
하루가 빠듯해도 뿌듯해요"

알립니다

푸른 숲 지켜갈 대학생 모이세요

푸른 숲을 함께 지키고 가꿔나갈 대학생 블로그 기자단을 모집한다. 산림, 숲, 나무, 등산, 휴양림, 산촌체험, 해외산림 등 산림과 관련된 것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 기간 | 12월 29일까지
지원 방법 | 산림청 블로그에서 지원서 내려받아 작성, 산림에 관한 자유 주제로 A4 1장 내외 기사와 함께 e메일(foanews@forest.go.kr)로 지원
결과 발표 | 2011년 1월 5일 블로그 및 개별통보 예정
활동 내용 및 혜택 | 2011년 1년간 산림청 블로그에 수록할 콘텐츠 개발 및 현장 취재, 소정의 취재 지원비 제공 및 블로그 기자단 팸투어 초청

산림청 ☎ 042-481-4074 forest.go.kr 블로그 blog.daum.net/kfs4079

나눔·봉사 실천할 해외자원봉사단 모집

겨울방학 동안 나눔과 봉사를 실천할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을 모집한다.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은 총 12개 팀, 2백30명으로 구성되며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7개국에서 10여 일간의 일정으로 봉사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모집 대상 | 전국 만 15~24세(1987년 1월 1일생~1996년 12월 31일생)의 청소년. 단 1인당 1개 단체, 1개 프로그램만 지원할 수 있음
접수 기간 | 12월 27일 오후 1시까지
지원 방법 |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각 주관단체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해 e메일로 제출
결과 발표 | 2011년 1월 4일 오후 1시. 1차 서류 통과자 각 주관단체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
활동 내용 및 혜택 | 해당 지역 봉사활동과 문화교류활동을 하게 되며 주관단체에서 편도 항공료 및 경비 지원

여성가족부 ☎ 02-2075-8652 mogef.go.kr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02-330-2864 kywa.or.kr

공감 퍼즐

1		2		
		3	4	
			5	6
7	8			
	9			

빈칸의 답을 주소, 연락처와 함께 12월 29일까지 jjsmal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아이폰 〈정책투데이〉 앱에서도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가 로

1. 주로 학교에서 먼 거리에 집이 있는 학생들이 숙식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제공하는 시설. 옛날엔 사감도 있었죠.
3. 벌써. 앞서. "버스는 OO 떠났다."
5. 막히지 않고 잘 통함. "소셜미디어가 국민 OO혁명 이끈다."
7. 불교에서 만행(萬行)과 만덕(萬德)을 닦아 덕과(德果)를 장엄하게 함. OO경.
9. 우리 온돌방에서 아궁이 가까운 쪽의 방바닥을 말하죠. 군불을 때면 가장 따뜻한 부분이죠.

세 로

1. 일정 지역에서 오랜 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기상의 변화. 서울 G20 정상회의 등 세계 각국이 관심을 가지고 대응하는 과제의 하나죠.
2. 한곳에서 다른 곳까지. 한때로부터 다른 때까지의 동안. 서로 맺은 관계. "눈 깜짝 할 OO."
4. 빙긋이 웃음. "OO금융 덕분에 걱정을 덜게 됐다."
6. 나누어진 것들이 다시 하나로 뭉침. "한반도 평화OO"
8. 어머니가 자녀에게 "내 친구 아들 아무개는 공부도 잘하고…" 하며 비교를 곧잘 한다는 데에서 나온, 사전에는 나오지 않는 유행어죠.

〈Weekly 공감〉 88호(12월 8일자) '공감 퍼즐' 정답
가로 1 러브콜 3 방시 4 시청률 6 태극기 8 항공모함
세로 1 러시 2 콜택시 3 방위태세 5 청설모 7 기항

〈Weekly 공감〉 88호 '공감 퍼즐' 당첨자
김영진·인천 중구 북성동 1가
김은선·충남 청양군 청양읍 학당리
김은숙·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박안나·광주 동구 계림1동
최태선·경북 구미시 광평동

작은 나눔으로 큰 행복 얻으세요

가수 션 '나눔으로 더 커지는 사랑의 나무'

연합

우리나라에서는 행복한 결혼식이 흔치 않다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은 혼수와 예단이고 두 번째는 축의금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2004년 10월 8일 아내 정혜영 씨와 결혼했는데 축의금도 받지 않았고 혼수와 예단도 생략했습니다. 결혼식을 가장 행복하고 귀중한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서였지요. 과연 저희 부부뿐 아니라 하객들에게도 행복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들은 결혼식장을 떠나고 싶지 않았답니다. 무려 5시간 동안 진행했는데도 말이에요.

결혼식을 마친 후 저는 아내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만 행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하루에 1만원씩만 모아 이웃과 함께 나누자고요. 그때부터 하루에 1만원씩 1년 동안 모은 3백65만원을 결혼기념일에 맞춰 기부하고 있습니다. 노숙자분들에게 식사를 드리는 봉사도 하고요. 1천5백 분이 한 끼 식사하는 데 드는 비용이 1백50만원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모은 돈이면 1천5백명이 두 끼씩 먹고도 남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그동안 세 아이를 낳았는데 도우미 아주머니의 도움 없이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도우미 비용을 저축하고 돌잔치 비용도 아꼈더니 2천만원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세 명의 심장병 어린이를 치료해줬습니다. 사람들이 돌잔치 때 아이가 무엇을 잡았느냐고 묻더군요. 전 세 아이 모두 이웃의 손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뒤로하고 2008년부터 후원하기 시작한 필리핀 어린이 1백3명과 지난해 광고 촬영으로 큰돈이 들어와 후원하게 된 국내 어린이 1백명의 부모입니다. 아이티에도 저희 아이들 6명이 살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눔을 어렵게 여깁니다. 나의 작은 나눔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티끌도 모이면 태산이 될 수 있듯, 나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명인데 10분의 1인 5백만명이 1백원씩만 모아도 한 달이면 1백50억원, 1년이면 1천8백억원이 됩니다.

나눔은 받는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저희 부부는 작은 것을 드리고 큰 행복을 얻습니다. 나눔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행동하는 나눔은 반드시 보답합니다. 나누는 그 순간부터 행복을 안겨줍니다.

정리 · 김지영 기자

서울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10월 1일부터 29일까지 열린 대(對)국민 강연 '대한민국 선진화, 길을 묻다'의 세부 내용을 '공감코리아(www.korea.kr)'에서 발췌 요약해 연재합니다.

공감마당

1.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
2. 지난주 기획특집에 대한 의견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

홍경석 대전 서구 둔산동

1. '정책 브리핑 / 복권을 삽니다=나눔을 삽니다' 기사를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처음 로또복권을 한 주에 한 번꼴로 구입했습니다. 그러다 당첨이 너무도 안 돼서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사를 통해 복권기금의 65퍼센트가 공익사업에 지원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다시 복권에게 '러브콜'을 보낼까 합니다.

2. 지난 호 기획특집 '한국, FTA 허브 국가로 도약' 중 '용어를 알면 FTA가 보여요' 기사가 제겐 유익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비위반제소'라든가 '양허관세'와 같은 말은 뉴스에서 흘려들었을 뿐 정작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국민들이 차츰 FTA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면 명실상부한 FTA 허브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기지 않을까요.

3. '공감 마당' 독자 앙케트를 실시해 2011년에 가장 바라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유재범 서울 관악구 봉천동

1.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의 발족과 앞으로의 각오를 잘 읽었습니다. 정부와 국회 또한 새해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를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 강력한 국방개혁 작업의 모멘텀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대한민국 국군이 선진 강군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부존자원은 없지만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 구실을 하는 지리적 이점, 그리고 유능한 인적자원을 가진 우리나라가 살 길은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의 필요성과 함께 그 장밋빛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잘 제시해줬습니다.

3. 코스피 수치 2000 돌파가 뜻하는 의미와 향후 전망에 대해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독 자 의 견

〈Weekly 공감〉은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귀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의견은 〈Weekly 공감〉 제작에 소중하게 반영하겠습니다. 아래의 설문에 의견을 적어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12월 22일(수)까지 gonggam@korea.kr로 보내주십시오. 의견이 게재된 분에게는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에 실린 기사 중 가장 관심 있게 읽은 기사와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2. 이번 주 특집으로 다룬 '국민 소통혁명'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십시오.
3. 〈Weekly 공감〉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을 적어주십시오.

*온(溫)맵시란? 여름철 노타이 차림의 쿨맵시 캠페인에 이은 겨울철 따뜻하게 옷입기(내복입기, 겹쳐입기) 캠페인입니다.

온(溫)맵시로 따뜻하게 실내온도 20℃!

고유가 시대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은 겨울철,
내복 착용만으로 체감온도가 3℃ 상승합니다.
온 국민이 내복을 입고 난방온도를 3℃만 낮추면 난방에너지의 20%가 절약되며,
대한민국 전체로는 1조8천억원이 절약됩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개발 의제'는 아프리카 등의 '빈곤의 악순환'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
사진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수로, 제방을 건설할 예정인 콩고의 추앙카마을.

'한강의 기적'이 '서울 개발 컨센서스'로

'글로벌 재균형' 확립 기반 구축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다 함께 성장하기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성과를 일궜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우리나라의 성공 경험이 서울 컨센서스를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아울러 개발 문제의 당사자인 비회원 개발도상국들을 개발 워킹그룹 회의에 초청해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서울 개발 컨센서스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를 형성했다.

조영철 기자

권해룡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무역국제협력국장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사회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열악하다. 막대한 자본을 들여 인프라를 구축해도 이를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인적자원이 부족해 인프라 투자의 효과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지 않는다.

또 교통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으면 어린 학생들이 학교에 갈 수 없거나 농산물을 생산지에서 시장까지 운송할 수 없어 인적자원 개발과 무역 역량도 저해될 수밖에 없다.

서울 G20 정상회의의 '개발 의제'는 바로 이런 '빈곤의 악순환'을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틀을 갖추는 데서 출발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사실 빈곤을 퇴치하고 번영을 함께 누리기 위해 개발 의제를 꾸준히 논의해왔다. 2000년 각국 정상들이 유엔에서 합의한 새천년개발목표(MDG·Millenium Development Goals)가 대표적이다.

다각적 외교 교섭 통해 개발 의제 공감대 형성

MDG는 2015년까지 전 세계 기아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고 초등교육을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등 2015년까지 달성해야 하는 총 8가지의 개발 목표다. 그간 선진국들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한 원조방안을 선진 7개국 모임인 G7을 통해 논의해왔다.

동아DB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범한 G20에서는 주로 각국의 거시경제 조정, 국제금융체제 개혁 문제 등 시급한 현안 위주로 논의가 이뤄지다 보니 그동안 개발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기회가 없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빈곤인구가 증가하고 MDG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발 문제는 G20로서도 도외시할 수 없는 중요한 의제로 부각됐다.

우리나라는 금융위기를 계기로 출범한 G20가 위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활동 근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통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G20 비회원국의 주요 관심사인 개발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꾸준히 역설해왔다.

올해 초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의 구상을 밝히면서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여기서 우리나라는 개발 문제가 단순한 원조 논의를 넘어 '글로벌 재균형(Global Rebalancing)' 확립이라는 G20 정책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방향을 제시했다.

서울 개발 컨센서스, 지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해야

이후 우리는 G20 셰르파(교섭대표) 회의, 양자 면담, 비회원국 대상 활동 등 다각적인 외교 교섭을 통해 개발 의제를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그 결과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논의하게 될 개발 의제의 기본적인 추진 방향에 합의할 수 있었다. 그것은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이라는 G20 정책체계(G20 Framework for Strong, Sustainable and Balanced Growth)와 부합하는 방향에서 개발 의제를 다루도록 하는 것이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 이후에는 개발 워킹그룹(G20 Development Working Group)을 발족함으로써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다룰 개발 의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다.

개발 워킹그룹은 총 1백여 명의 G20 회원국 및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다년간의 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s)을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장이다. 우리나라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공동의장국으로서 개발 의제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서울에서 개최된 두 차례의 개발 워킹그룹 회의에서 G20 회원국들은 개발도상국, 특히 저소득국가들(LICs·Low Income Countries)의 역량 강화를 통한 경제성장 증진을 G20 개발 의제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는 데 우선 합의했다.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에 장애가 되는 핵심 요인에 대해 토론한 결과 인프라, 인적자원 개발, 무역, 식량안보, 금융소외계층 포용(Financial Inclusion) 등 총 9개 분야에 대해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개발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런 논의를 토대로 드디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다 함께 성장하기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Seoul Consensus for Shared Growth)'와 다년간 행동계획을 채택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며 단시간 내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닦은 우리나라의 성공 경험이 서울 컨센서스를 추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아울러 개발 문제의 실질적 당사자인 에티오피아, 말라위, 베트남 등 비회원국 개도국들을 개발 워킹그룹 회의에 초청해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함으로써 서울 개발 컨센서스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었던 배경 중 하나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정상들이 서울 컨센서스를 '아프리카 컨센서스'라고 평가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개발 의제를 다루는 우리나라의 성의에 감동한 아프리카 정상들은 회의 후 이 대통령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서울 개발 컨센서스와 다년간 행동계획을 통해 G20 차원에서 개발 의제를 체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처음으로 구축했을 뿐 아니라, G20의 위상 강화에도 기여했다. 지난 1년간 개발 의제 추진 과정에서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 개발 컨센서스가 G20와 우리나라의 지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G

동아DB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세계가 다 함께 성장하기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채택했다. 아프리카 정상들은 이를 '아프리카 컨센서스'라고 평가하며 반가워했다. 사진은 9월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

‘도하개발어젠다 협상’ 가속화 합의

무역자유화 진전 조건 마련

서울 G20 정상회의의 여러 가지 무역 의제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이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막바지 단계에 이른 협상을 내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성과에 더해 모든 분야에 걸친 포괄적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 우리나라가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과 중재를 거듭한 결과였다.

조영철 기자

정병화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국제협력과장

무역 분야는 G20 정상회의에서 빠지지 않고 논의돼온 단골 의제다. G20 정상회의의 목적 중 하나가 경제위기에서 벗어나 세계경제의 성장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무역 여건 회복이나 확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지난 네 차례의 G20 정상회의에서는 무역투자보호조치 동결(Standstill)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이뤄지고 있는 도하개발어젠다(DDA·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 등이 주요 무역 의제로 논의됐으며, 이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보호조치 동결은 2008년 미국 워싱턴 G20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돼왔는데, 그동안 어려운 세계경제 상황 속에서도 각국의 보호조치 자제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러한 동결조치를 2013년 말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했고,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동결조치를 유지하는 것에 더해서 관련 국제기구에 보호주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주시토록 하는 지침을 주기로 합의했다.

한편 세계경제 사정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실업률이 보호주의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배제할 수 없어 국제사회가 실업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무역자유화가 실업 문제 해소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 착안해 우리 주도로 국제기구에 관련 연구를 요청하는 한편, ‘무역자유화가 고용 창출과 긍정적으로 연관돼 있다’는 점을 밝혀내기도 했다. 이런 여러 가지 무역 의제 중에서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무엇보다 가장 중요했던 의제는 ‘DDA 협상’이었다.

DDA 협상은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시작된 후 10여 년 가까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미뤄왔던 의제다. 특히 협상 진전을 위해 G20 정상회의 차원에서 어떤 지침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았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DDA 협상 진전과 관련된 지침이 나와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무엇보다 협상 타결이 가져다줄 혜택 때문이다. 협상이 타결될 경우 세계경제 회복에 끼칠 긍정적인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WTO는 현재의 시장개방안에 합의하는 경우 1천5백억~5천억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무역투자보호 동결조치 2013년 말까지 연장

그동안 협상 참가국의 국내정치 상황이 협상 진전을 지연시켜왔는데, 내년에는 주요국에서 선거가 거의 없어 국내정치의 제약도 그만큼 완화된다. ‘주고받기 협상’을 통해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만약 ‘2011년’이라는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DDA 협상은 앞으로 몇 년을 더 표류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가 공감하고 있었다.

G20 정상들은 이 문제에 대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특정 시한까지 협상을 종결키로 합의한 바 있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터라 G20 정상회의에 대한 신뢰 훼손의 문제도 한몫했다.

이런 모든 측면을 감안해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정치적 협상 타결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지침 마련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시키는 데 성공했고, 결국 다음과 같은 합의문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

“2011년이 협상 타결의 결정적인 기회임을 감안해서 막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10여 년 가까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도하개발어젠다 협상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2011년에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이다. 사진은 수출 물량이 쌓인 부산신항.

지 단계에 이른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의 성과에 더하여 모든 분야에 걸친 포괄적 협상을 가속화한다." 이 합의문은 현재의 협상 상황에 비춰볼 때 매우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DDA 협상은 지금까지 주로 농산물과 공산품 시장개방을 중심으로 진행돼왔는데, 내년 기회를 이용해 막바지 협상을 위해 모든 분야에서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주요 협상 분야뿐 아니라 모든 협상 분야에서 적극적인 주고받기 협상이 가능해졌다. 물론 이에 따라 합의 도출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사실 협상 과정에서 '모든 분야 협상'이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핵심 쟁점 분야인 농산물 및 공산품 협상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일부 개발도상국의 반대가 있었다. 또 '막바지 단계'라는 문구와 관련해서도 신흥개도국의 시장개방이 아직 불충분하므로 이러한 용어 사용 자체가 시기상조라며 일부 선진국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구가 포함돼야만 2011년이라는 귀중한 기회를 이용해 짧은 기간 내에 모든 협상 분야에서 진전을 거둘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다. 문안 협의 최종 단계에서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했다. 개도국들이 '지금까지의 협상 성과에 기초해서 협상해나간다'는 문구를 포함시켜줄 것을 주장한 것이다.

개도국은 2008년의 잠정합의문을 기초로 향후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선진국들은 잠정합의문을 기초로 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실질적인 시장개방이 어려우므로 이를 기초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의미는 유사하면서도 표현이 다른 '지금까지의 협상 성과에 더하여'라는 문안을 제시하며 양측의 동의를 얻어나갔다.

이렇듯 DDA 관련 문안 협의 과정은 많은 긴장감과 합의 도출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진행됐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을 최대한 자제하면서 새로운 설득논리와 문안을 제시해나갔다.

인내심·균형 있는 조율이 문안 합의 성공 비결

이처럼 인내심을 가지고 균형 있는 조율을 추진해왔던 것이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바라는 문안 합의에 성공한 비결이었다. 문안 합의가 이루어진 후 많은 국가들이 우리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점도 많다. 중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방의 제안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문안의 의미를 충분히 분석하고 판단해서 양측과 협의해야 한다는 것, 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스스로 중재 문안을 만들어 제시하면서 설득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좋은 문안에 대한 합의 도출보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러한 문안을 기초로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해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G20 합의 문안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기여를 해나갈 계획이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마련된 기회를 적극 활용할 때다. G

'유가 변동성 완화' 공조방안 도출

유가 변동성에 대한 G20 국가 간 공조방안 합의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에너지·기후변화 분야에서 그간의 어느 정상회의 때보다 다양한 의견 교환과 합의가 이뤄졌다. 특히 유가의 변동성에 대한 G20 국가 간 공조방안으로 실물시장 데이터의 투명성 개선, 산유국과 소비국 간의 대화 강화, 금융시장 투명성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전됐다.

이정희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 무역개발과 사무관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에너지·기후변화 분야에서 그간의 어느 정상회의 때보다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의견 교환과 합의가 이뤄졌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장 중점을 뒀던 의제는 에너지 가격, 특히 유가의 변동성에 대한 G20 국가 간 공조방안 마련이었다.

얼마 전 유가가 배럴당 85달러를 넘어 최근 2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3년 전 고유가 위기의 재현을 우려하는 기사들로 언론이 떠들썩했다. 이렇듯 고유가 문제는 늘 경제 분야의 단골 기사거리가 된다. 유가 급등은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개개인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석유 의존도가 40퍼센트를 넘고, 이를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는 더욱 치명적이다. 그리고 최근 몇 년 새 석유시장의 금융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고유가만이 아니라 유가의 급격한 변동성이 산업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경제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주범으로 등장하고 있다.

동아DB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 등 녹색성장을 위한 협력방안에도 합의했다. 사진은 경북 영덕 풍력발전소.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2008년 7월 유가는 배럴당 1백45달러까지 치솟았다가 불과 몇 개월 사이에 40달러 선까지 급락했다. 이러한 단기간의 유가 급등락은 실물시장 수급 변동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미국을 위시해 세계 각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경쟁적인 금리 인하정책을 폈고, 이는 유동성을 증대시켜 석유 및 원자재 파생상품시장의 투기 수요를 유발해 유가 폭등을 가져왔다. 그러다 미국 등 선진국들의 수요 둔화가 통계수치로 증명되면서 석유 관련 투기자금의 이탈이 본격화되고, 여기에 미국발(發) 금융위기가 유가 폭락을 가속화한 것이다.

에너지 가격 변동성 문제, 한·불 공동 이행과제로 추진

우리 정부는 유가가 이슈가 될 때마다 국내적으로 유가 안정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는다. 하지만 석유와 같이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상품의 경우 국내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석유 파생상품시장이 활성화돼 유가에 대한 투기 요인의 영향이 커지면서 국제적인 공조가 더욱 중요해지게 됐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산유국과 소비국이 고루 모여 있는 G20 정상회의는 유가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적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에 매우 효과적인 논의의 장이다. 차기 정상회의 의장국인 프랑스도 이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에너지 가격 변동성 문제를 한·프랑스 간 공동 이행과제로 추진하게 됐다.

이미 G20 정상들은 2009년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를 통해 유가 변동성 완화를 위해 실물 및 금융시장 투명성 개선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한 바 있다. 하지만 피츠버그 합의는 기존에 국제에너지포럼(IEF),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 등 국제기구를 통해 진행되고 있던 공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개별 국가 차원의 투명성 개선을 독려한 정도에 그쳤을 뿐, G20 정상회의 차원의 공조방안 마련에는 이르지 못했다.

더욱이 올해 6월 캐나다 토론토 G20 정상회의에서는 당시 유가의 안정적인 움직임에 따른 관심 저하 등의 이유로 유가 변동성 문제를 전혀 다루지 못해 에너지 문제에 대해 논의할 기회가 사라질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론토 G20 정상회의 직후인 7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셰르파 회의에서 피츠버그 합의에 대한 후속작업의 필요성을 적극 제기하면서 에너지 문제를 재점화했다. 그리고 여기서 다수 회원국의 지지를 얻어 에너지와 기후변화를 서울 G20 정상회의 의제로 상정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다.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 등 에너지원 다각화 추진돼야

이때부터 우리나라는 프랑스와 공동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 합의 목표에 관한 자료집을 작성해 지난 9월 G20 국가에 회람시키고 본격적인 실무 논의를 시작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유가 변동성 완화를 위한 G20 공조방안은 ▲실물시장 데이터의 투명성 개선 ▲산유국과 소비국 대화 강화 ▲금융시장 투명성 개선이라는 3개의 큰 주제를 담고 있다.

우선 실물시장 데이터 투명성 개선과 관련해 IEF 등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국제석유공동통계(JODI)로 공유되는 석유 생산, 소비, 정제, 재고 수준 등 실물시장 데이터의 질을 개선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합의했다.

둘째, 산유국과 소비국 간 대화 강화 문제는 IEF가 내년 1월부터 정례 개최를 계획 중인 IEF, 국제에너지기구(IEA),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공동 워크숍 기간에 중장기 석유시장 수급 전망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토록 요청했다. 이는 그간 선진국과 소비국 중심기구인 IEA와 산유국 중심기구인 OPEC의 서로 다른 통계를 개선하기 위한 첫 단추가 될 것이다.

셋째, 금융시장 분야에서는 국제증권감독기구 등 관련 국제기구와 G20 실무그룹 간 공조를 통해 석유 파생상품시장 투명성 및 규제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이 같은 합의로 G20 국가 간 공조방안 도출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이제 이를 개별 국가에서 이행 가능한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은 차기 프랑스 회의의 몫으로 남아 있다.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더 많다는 뜻이다.

동아DB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유가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국제 공조방안이 논의됐다. 사진은 한국석유공사의 베트남 유전개발 현장.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석유는 한정된 자원이며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등 부정적 영향도 크기 때문에 유가대책 논의가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석유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효율화와 청정에너지 공급 확대 등을 통한 에너지원의 다각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 이번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G20 국가 간 최초로 '녹색성장'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한 것이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되는 이유다. G

2만명의 '미소'… 이젠 찾아가는 '미소'

미소금융 1주년… 지원 1천억원 돌파 · 전국 100개 지점 열어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미소금융이 12월 15일로 출범 1주년을 맞았다. 1년 동안 미소금융 지원 실적은 1천억원을 넘었고 전국에 1백 개의 미소금융 지점이 문을 열었다. 미소금융은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대출 상담자의 생업 현장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미소금융 이동상담 창구를 늘리고 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노트북과 스마트폰용 '찾아가는 미소금융'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고 있다.

#1 대구 서문시장에서 유아복을 파는 전소정(가명·34) 씨는 최근 매출 부진으로 고금리인 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던 중에 우리미소금융재단 대구지점에서 1천만원의 대출을 받고 시름을 덜었다. 우리미소금융재단과 미소금융중앙재단의 찾아가는 이동서비스 차량이 지난 11월 2일과 3일 서문시장을 찾아왔을 때 현장에서 상담하고 상인회 회장의 추천을 받아 부족한 점포 운영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 씨는 "평소 가게 일로 바빠서 미소금융에 대해 잘 알지 못했고, 상담을 받으러 갈 엄두도 못 냈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서 도와주니 정말 좋다"고 말했다.

#2 경기 의정부시 제일시장에서 과일주스와 옥수수, 붕어빵 등을 파는 이지순(가명·57) 씨도 KB미소금융재단에서 제일시장을 찾아와 홍보활동을 할 때 미소금융 전통시장상인 자립지원 자금 대출을 알게 됐다. 이 씨는 한부모 가장으로 오전에는 건물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전통시장에서 노점을 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으나 운영자금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5백만원을 대출받은 이 씨는 "제일시장은 날씨와 관계없이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받은 돈으로 계절상품을 구입하고 외상을 해결하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뻐했다.

미소금융이 출범 1주년을 맞았다. 미소금융은 서민의 자립을 위한 대출뿐 아니라 사후 관리서비스까지 지원해 금융과 복지를 결합한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찾아가는 미소금융' 서비스로 상담버스를 마련해 지난 10월 18일부터 전국 40여 곳의 전통시장을 방문해 현장 상담과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상담버스는 상담실, 대기실, 프린터, 복사기, 팩스 등을 갖추고 넷북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지점을 방문하기 어려운 상인들의 생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대출 상담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 용인시 중앙시장을 찾아가 상담을 진행한 삼성미소금융 수원지점 황의돈 상담위원은 "시장상인들은 종업원 없이 혼자 장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점을 방문해 상담하는 게 여의치 않다"며 "미소금융의 이동 상담과 자원봉사자의 시장 내 홍보로 많은 시장상인들이 재단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자금을 제때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중복 수혜 방지 위해 미소금융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미소금융이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지난해 12월 15일 경기 수원시 팔달문시장에서 삼성미소금융재단 1호점 개점으로 시작된 미소금융은 창업 및 점포 운영자금 중심의 서민금융상품으로 자리를 잡았다.

1년 동안 미소금융 지원 실적은 1천억원을 돌파했다. 미소금융 지점을 통해 6천6백68명에게 6백67억원, 기존 복지사업자가 6천62명에게 2백97억원, 소액보험사업으로 8천3백58명에게 41억원 등 올해 12월 13일까지 모두 2만1천88명에게 1천5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미소금융 전국 지점도 1백 개를 넘어섰다. 12월 16일까지 수도권에 45개, 지방에 55개의 미소금융지점이 설립됐고, 올 연말까지 1백8개 지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서민들이 미소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미소금융중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찾아가는 미소금융 서비스의 하나로 상담버스를 마련해 전국 40여 곳의 전통시장에서 현장 상담과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상담버스는 상담실, 대기실, 프린터, 복사기, 팩스 등을 갖추고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현장 대출 상담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있도록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춤과 동시에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미소금융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보건복지부, 신용정보회사, 소상공인진흥원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여러 기관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연계해 중복 신청 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함으로써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또 미소금융 지역재단 대출 심사자가 통합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상담부터 심사, 승인, 사후관리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게 돼 미소금융 대출 지원 업무가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됐다.

미소금융은 이제 지점에서 고객을 맞는 것을 넘어 찾아가는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미소금융중앙재단은 대출 상담자의 생업 현장에서 대출 업무가 가능하도록 미소금융 이동상담 창구를 확대하고 무선 인터넷을 이용한 노트북 및 넷북, 스마트폰용 '찾아가는 미소금융'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하고 있다. 미소금융 상담버스는 찾아가는 서비스의 일환이다.

또 SK미소금융재단은 '찾아가는 미소금융'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신용등급을 조회하고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미소금융의 특성 중 하나는 돈을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대출고객이 자활에 성공해야 대출 회수율이 높아지고 미소금융사업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현대차미소금융재단의 경우 미소금융 대출자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미소학습원을 열고 사업 계획부터 인테리어까지 창업 노하우를 알려주는 '드림 실현 프로젝트' 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각지의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수혜자를 미소금융재단이 전부 지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미소금융중앙재단은 지난 6월 29일 ▲경영, 법률, 세무 등 전문지식 분야 ▲기술, 기능, 매출 노하우 등 재능 나눔 분야 ▲영업 또는 업무를 지원하는 일손 지원 분야 등에서 1천7백여 명이 참여하는 미소희망봉사단을 창단했다. 미소금융이 서민들의 자활을 돕는 것뿐 아니라 나눔과 봉사문화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 상담창구 확대 ·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개발

미소금융은 또한 우리 사회에 금융과 복지를 결합한 새로운 영역을 만들었다. 연세대, 고려대, 부산대, 순천향대 등에 올해 2학기부터 마이크로파이낸스(미소금융) 과목이 개설됐다. 비제도권을 통한 대표적인 서민금융으로 정착되면서 전통시장에서 고리 일수 대출이 사라지는 효과를 나타냈다.

미소금융중앙재단 김승유 이사장은 "기업과 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미소금융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며 "미소금융사업을 통해 우리 주변의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이끌어냈다는 점이 큰 성과"라고 밝혔다. G

글 · 이혜련 기자

추가협상 내용, 멀리 보고 판단해야

한미 FTA, 중장기적으로 산업 경쟁력 강화

이항구
산업연구원 주력산업팀장

2007년 우리나라와 미국이 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추가협상 끝에 종지부를 찍었다.

초미의 관심사였던 자동차 분야의 추가협상 타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미국은 협정 발효 후 4년간 현행 2.5퍼센트의 승용차 관세를 유지한 후 5년째 되는 해에 철폐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협정 발효일에 현행 8퍼센트의 승용차 관세를 4퍼센트로 인하해 4년간 유지한 후 5년째 되는 해에 철폐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은 25퍼센트에 달하는 상용차 관세를 7년간 유지한 후 이후 9년간에 걸쳐 균등철폐하기로 했다. 전기자동차 관세는 우리나라가 발효일에 관세를 8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인하하고, 우리나라와 미국이 4년간 균등철폐하기로 합의했다.

지난번 협상 타결 내용과 비교해볼 때 시장 개방 시기가 늦춰졌고 우리나라가 더 많이 양보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간 자동차 교역과 판매 물량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협상의 균형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고 본다.

우리나라 자동차업계, 올해 미국시장 점유율 사상 최고치

한미 양국은 자동차 분야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1995년에 자동차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이 1997년에 슈퍼 301조를 동원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분야를 우선협상대상국관행(PFCP)으로 지정하자 양국은 1998년에 불균형 해소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처럼 양국은 자동차 분야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공동 노력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무역수지 흑자는 1994년의 13억4천3백만 달러에서 2006년 1백5억 달러로 증가해 같은 해 대미 무역수지 전체 흑자 95억2천9백만 달러를 상회했다. 올해도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 같은 무역 불균형의 심화로 우리나라 자동차업계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현지 생산 설비를 구축해 올해 5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미국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업계가 미국 내 생산을 통해 수출을 대체하고 있지만 대미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된 반면 미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약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미국을 대표하던 GM과 크라이슬러가 파산해 그 여파로 미국 자동차 부품업체를 비롯한 연관 산업도 큰 피해를 보았다.

우리나라 자동차업계는 올해 미국시장에서 90만 대의 자동차를 현지 생산과 수출을 통해 판매해 미국시장 점유율이 7.8퍼센트로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우리나라 내수시장 판매는 올해 7천5백 대 정도에 그쳐 우리나라 내수시장 점유율이 0.5퍼센트에 불과할 전망이다. 미국 정부와 의회는 이러한 자동차 분야에서의 불균형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고, 빈사상태에 놓여 있던 미국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해 추가협상을 요구해온 것이다.

따라서 근시안적 차원에서 이번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 내용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일방적인 잣대로 손익을 평가해서도 안 된다. 한미 FTA가 중장기적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면서 여타 국가와의 FTA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랜 산고 끝에 새롭게 태어난 한미 FTA가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아 조기에 발효될 때 양국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을 것이다. G

비준과 협정 이행 늦어질수록 국익 훼손

비준 동의안 처리 찬성이 반대보다 16.8%P 높아

정인교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타결로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FTA 이행 길을 텄다. 자동차 분야에 대한 양보로 추가협상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여전하지만 한미 FTA 조기 이행을 바라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12월 6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추가협상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는 평가(46.2퍼센트)가 '잘했다'(38.5퍼센트)보다 7.7퍼센트 포인트 많았다. 그러나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찬성(43.7퍼센트)이 반대(26.9퍼센트)보다 16.8퍼센트 포인트 많았다.

추가협상에서 균형된 결과를 도출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 하지만 2007년 서명된 협정에 대해 불만이 큰 미국이 추가협상을 요구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자국의 자동차 산업이 사상 최악의 구조조정을 겪은 상황이라 미국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해 자동차 분야의 양보를 줄곧 요구해왔다.

추가협상 결과를 놓고 이익균형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달리 봐야만 정확한 평가가 가능하다. 한미 FTA 협정의 큰 틀에서 보면 자동차 분야의 혜택을 4년 이후 누릴 수 있게 됐을 뿐 나머지 협정 이익은 바로 실현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 FTA와 한·유럽연합(EU) FTA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분야인 돼지고기 관세 이행을 2년 늦추고, 의약품 지식재산권(시판·특허 연계) 이행을 3년 늦춘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협상 타결 이후 협상 담당자와 정부 입장에서 곤혹스러운 점은 그동안 기존 협정을 변경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는 정부가 국민을 속여온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우리 측 협상 최고책임자인 통상교섭본부장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수정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협정 변경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협상 전략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2007년 4월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직후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FTA 경제효과를 국민들에게 홍보하면서 자동차 분야에 대한 이익을 강조해왔던 것은 사실이다. 계량모형으로 FTA 경제효과를 분석해보면 자동차 시장 개방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 우리 자동차업계도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는 다수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당사자인 자동차 생산업체들 추가협상 결과 지지

추가협상 반대론자들은 자동차 분야 양보를 이유로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자동차 생산업체들은 추가협상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자동차업계의 논리는 명쾌하다. 자동차 분야는 양보 없이는 미국에서 협정 비준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앞으로 몇 년을 더 논의해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임을 우려하고 있어서다.

당분간 미국에서 자동차산업의 고전은 계속될 것이고, 무리하게 수출을 늘리기보다는 현지 생산을 늘려 통상 마찰을 줄이면서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 4년이 지나갈 것이고 완성차 관세 철폐 혜택은 그때 누려도 된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따라서 협정의 조기 이행은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정치권과 반(反)개방론자들이 한미 FTA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다. 비준과 협정 이행이 늦어질수록 국익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득을 볼 수 있는 한미 FTA 조기 이행만이 민생을 챙기는 지름길이다. G

2010 광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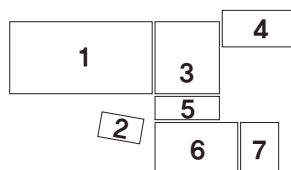
아름다운 땀방울로 대한민국 알렸다

'박주연 선수 파이팅!'
'양궁 김란숙 언니 파이팅!'
'그대들의 땀방울이 아름다워요. 당신들이 진정한 국가대표입니다.'

그들은 환호했고 승리했다. 중요한 건 국민 모두가 곁에서 그들과 함께했다는 점이다. 제10회 광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이 8일간(12월 12~19일) 각자 신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름다운 도전을 펼쳤다. 세간의 주목을 끌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선전에 많은 국민들은 광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한국선수단 홈페이지(guangzhou2010.kosad.or.kr/message)를 통해 실시간으로 격려의 글을 남기며 응원했다.

이번 대회에서 18개 종목(축구는 뇌성축구와 시각축구 포함) 2백80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한국은 12월 17일 오전 9시 현재 금메달 17개, 은메달 29개, 동메달 24개로 중국, 일본, 이란에 이어 4위를 달리고 있다. 한국 선수단은 사격과 볼링, 배드민턴, 육상, 수영 등에서 골고루 금메달을 따냈다.

메달 획득 여부를 떠나 우리를 감동시킨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선수들의 마음가짐이었다. 불편한 몸을 탓할 법도 했지만 오로지 자신의 노력과 흘린 땀방울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다는 점만으로도 소중한 '쾌거'다. G

글 · 유재영 기자 / 사진 · 연합

1 '당연한 1등이었는데….' 광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휠체어육상 남자 8백미터(T53등급) 결승에서 홍석만이 1위로 결승점을 통과하고 있다. 그러나 2위를 한 일본 선수가 홍석만의 장애 등급이 의심스럽다고 항의했고, 조직위가 이를 받아들여 금메달을 억울하게 박탈당하고 말았다.
2 '불굴의 의지를 선보입니다.' 12월 12일 열린 광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회식에서 두 바퀴로 장애인 선수들의 의지를 표현한 퍼포먼스가 펼쳐지고 있다.
3 '영원한 대한민국의 대표선수들입니다.' 광저우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개회식에서 배드민턴 김기연 선수를 기수로 한국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
4 '박태환 못지않은 카리스마죠?.' 남자 수영 자유형(S9) 4백미터에서 한국 선수단에 첫 동메달을 선사한 권현 선수.
5 '이러고 서울까지 가고 싶어요.' 남자 탠덤사이클 4킬로미터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낸 한국 선수들이 태극기를 들고 트랙을 돌고 있다.
6 '어딜 넘봐. 양궁은 역시 한국.' 12월 16일 양궁 여자 개인 리커브 결승에서 고희숙이 힘차게 활시위를 놓고 있다. 고희숙은 중국 선수를 7 대 3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7 '스트라이크.' 볼링 남자 개인전(상지장애) 결승에서 송기수 선수가 멋진 포즈로 공을 던지고 있다.

새해에도 서민을 보듬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경제성장은 계속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12월 14일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일자리 28만 개 만들고 5% 안팎 성장

'2011 경제정책 방향'…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친서민정책"

우리나라의 새해 경제 전망은 밝다. 정부는 2011년에도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내수 증가를 바탕으로 연간 5퍼센트 내외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회복세가 지속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퍼센트 수준에 머물며, 경상수지 흑자 폭은 1백6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제는 '다 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경제'다.

정부는 12월 1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7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다 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경제'를 주제로 한 '2011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2011년 정부부처 업무보고 시작을 앞두고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전 부처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1년에도 5% 안팎 경제성장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회복과 내수 증가를 바탕으로 2011년 5퍼센트 내외의 경제성장이 예상됐다.

보고서는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는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고용, 소득 등 민생 여건도 점차 회

복되고 있으나 체감경기 개선이 아직 미흡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경제위기를 가장 빠르게 극복하고 있으며, 실물경제가 개선되고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완화되면서 2009년 2분기 이후 금융·외환시장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문별로 취약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구조개혁, 생산성 제고, 신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한 정책 노력의 성과가 서민, 중소기업에게는 충분히 체감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고용 회복이 지속되고 수출, 내수 증가세가 유지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여전히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년에는 빠른 회복 이후에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성장 속도가 올해보다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경제성장률 목표를 연간 5퍼센트 내외로 전망한 것은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3%

보고서는 내년에도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고용 회복세가 지속되면서 취업자가 28만명 내외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국제 원자재 가격과 임금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퍼센트 수준이 될 것이며, 경상수지 흑자 흐름도 이어가 흑자 규모는 연간 1백6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올해보다는 축소된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에 따라 정부는 2011년에는 '다 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경제' 기틀을 강화한다는 목표 아래 ▲튼튼한 거시경제–거시경제의 안정과 경제체질 개선 ▲따뜻한 서민경제–서민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제고 ▲지속가능한 선진경제–내수기반 강화와 신성장동력 확충 ▲글로벌 일류경제–글로벌 위상 제고와 대외협력 강화 등 4가지를 중점 정책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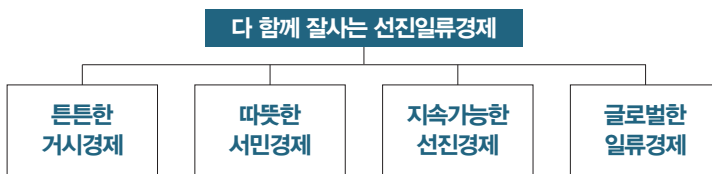
'튼튼한 거시경제'를 목표로 삼은 정부는 우리의 거시경제를 경기, 고용 상황과 물가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유연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에 따라 2011년 재정지출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배정했다.

이날 회의 전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는 2011년도 예산배정계획을 의결하고 내년 상반기에 2011년 전체 예산의 67퍼센트인 1백77조6천억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환율 불안정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상저하고(上底下高)'식 경기흐름을 보완하며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2011년 경제정책 방향과 과제

다 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경제

튼튼한 거시경제	따뜻한 서민경제	지속가능한 선진경제	글로벌한 일류경제

2011년 경제 전망

	2010년	2011년
경제성장률	6.1%	5% 내외
취업자 증감	31만명	28만명
소비자물가	2.9%	3% 수준
경상수지*	290억 달러	160억 달러

*국제통화기금(IMF)의 새로운 '국제수지통계' 매뉴얼 기준

2011년 상반기 재정지출 집중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에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한 대피시설, 생활안정 지원, 연평도항 건설 등에 5백99억원이 투입된다. 공병·병참물자 및 K-9 자주포 등 주요 핵심전력 보강에는 1천6백20억원이 배정됐다.

또 구제역 등 가축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검사비 및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긴급 지원에 3백80억원이 들어간다. 전국 6만 개 경로당에 대한 겨울철 난방비 지원,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취업 촉진사업 등 서민생활 지원에도 회계연도 개시 전 4백60억원이 배정됐다. 올 연말부터 당장 난방과 생계가 시급한 경로당과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들은 뒤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올해 6.1퍼센트 성장에 이어 내년 5퍼센트 성장은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또 "물가를 잡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친서민 정책이자 최고의 복지정책이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임시직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도록 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특히 당부한 것은 경제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었다. 이 대통령은 "경제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며 "일관성을 바탕으로 민관이 협력하면 내년에도 성공적으로 경제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물가안정 속 경기회복세 잇기 위해 공공기관 주요 사업비 57% 상반기 집행

2011년 거시경제 정책의 키워드는 '유연성'과 '체질 개선'이다. 경기, 고용 상황과 물가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유연하게 운용하되 풍부한 시중 유동성, 해외자본 유입 등이 물가와 자산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또 내년에는 성장률이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로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 기금, 공공기관 주요 사업비의 57퍼센트 정도를 상반기에 집행할 예정이다.

2008년 7월부터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는 경제정책조정회의로 환원해 정상적인 경제운영 체제로 전환한다. 다만 대외 불확실성에 대비해 중국 등 신흥국 동향을 상시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수출입 다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경제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관리, 한계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파이낸싱 프로젝트 대출 관리, 자본 유출입 변동성 완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거시경제 정책에서 풍부한 시중 유동성, 해외자본 유입 등이 물가와 자산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동아DB

가계부채 증가율이 실물경제 성장속도보다 빠르지 않도록 관리하고 주택담보대출은 장기·분할상환형·고정금리부 대출 비중이 커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업 부문에서는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자금 흐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장기·고액·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신용보증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대신 창업·신생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예금보험 공동계정 설치 등 저축은행 구조조정 강화

부동산 파이낸싱 대출 등 금융시장의 잠재적 불안요인에 적극 대응하고 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된다. 저축은행 예금보험료율을 현재 0.35퍼센트에서 0.40퍼센트로 높이고 예금보험 공동계정 설치 등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외환 부문에서는 은행 선물환포지션 제도 등을 점검하고, 필요시 은행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 거시건전성부담금 도입 등 추가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물가와 부동산시장의 안정도 중요하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계약재배 물량을 늘리고 물량 부족이 우려될 경우 계약 면적을 확대하는 등 예비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50개 주요 생필품에 대한 국내외 가격차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해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아울러 주부모니터단을 활용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동향을 조사하고 정부의 물가대책에 대한 반응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가격 상한을 미리 설정해 공기업이 주어진 가격 상한 내에서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발적인 원가절감을 하도록 유도하는 중기요금제가 시범 도입된다. 원가절감에 따라 공기업은 경영 효율화가 가능해지며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줄게 된다.

보금자리주택은 당초 계획대로 내년 중에 21만 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건축 관련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G

글 · 이혜련 기자

동아DB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왼쪽)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한미 FTA 쟁점 현안을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G20 성공 발판, 글로벌 리더 역할 확대

국제금융기구 채용 설명회 개최로 국내 인력 해외진출 활성화

정부는 서울 G20 정상회의 등으로 높아진 국가 위상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등 대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일류경제'를 2011년 경제정책 방향의 한 축으로 삼았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내년에도 G20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G20 정상회의준비위원회를 대체할 만한 조직을 만들어 서울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의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의제가 더욱 구체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대안도 적극 제시하기로 했다.

국제기구 내에서의 존재감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높아진 위상에 걸맞도록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를 개최해 국내 인력의 국제금융기구 진출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제통화기금(IMF), 중남미개발은행(IDB)과 공동 연수 프로그램을 열어 국제금융기구와의 협력을 다질 계획이다.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는 지난해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11월쯤에 열릴 예정이다.

공적개발원조 선진화 위한 예산 1조6천억원으로 확대

FTA 확대로 교역과 투자 기반도 확충한다. 미국, 유럽연합(EU), 페루 등과 이미 타결된 FTA는 하루속히 비준과 발효가 이뤄지도록 힘쓰고 호주, 터키, 콜롬비아 등과 협상 중인 FTA는 조속히 타결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간 FTA 협상 개시 여부를 검토하고 FTA로 인한 피해 부문 지원과 활용 기반 강화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지난 10월 발표한 공적개발원조(ODA) 선진화 방안에 따라 올해 1조3천억원인 ODA 규모는 내년에 1조6천억원으로 확대된다. 또 국제개발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체계적인 국가지원전략 수립, 사업 수행체제 개선, 평가기능 강화를 통해 일련의 원조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운영체계를 구축해나갈 방침이다.

사회적 자본을 늘리고 국격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도입한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세무검증제도 등이 그것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실시되면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나 내국법인은 이듬해 6월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

2010년도 분부터 적용돼 2011년 6월 최초 신고가 이뤄지며 신고하지 않거나 규모를 줄여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고소득자의 탈세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세무검증제도는 연간 수입이 5억원 이상인 의사, 변호사, 학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을 받도록 한 제도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소득 탈루를 통한 탈세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부는 검증 절차를 밟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가산세를 부과하고 세무조사 우선 선정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 제도의 도입방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경제적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통합을 위해 기부와 나눔문화 활성화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먼저 기부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늘리고 기부금 세제는 간소화, 합리화한다.

이에 따라 기부금단체 분류 기준이 지정과 법정으로 이원화되며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도 개인 기부는 20퍼센트에서 30퍼센트, 법인 기부는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늘어난다.

사회적기업 인증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 활성화에는 1백1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G 글 · 김지영 기자

정부는 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내년부터 임대용 보금자리주택 11만 가구 등을 공급한다. 한국경제

주거·의료·보육 등 서민생활 부담 줄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보육료 지원대상 확대 등 서민 경제정책 마련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빠른 속도로 경제위기를 회복해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서민들의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내년에도 따뜻한 서민경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결정했다.

서민경제 활성화는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필수 요소다. 정부는 '따뜻한 서민경제'를 내년도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삼고 국민 삶에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취약계층의 서민생활 안정을 이끄는 정책들이 눈에 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중산층을 확보해 탄탄한 서민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적인 것은 주거, 의료, 보육 등 서민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정책들이다.

내년에는 전세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비 경감을 위해 임대용 보금자리주택 11만 가구, 전세임대 1만3천 가구가 공급된다. 주택임대 활성화를 위해선 지원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부여하는 세제 지원 요건을 개선한다. 또한 정부는 주택기금을 통해 내년에 5조7천억원 규모로 전세·구입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민 의료비를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도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항암제 급여가 확대되고 폐계면활성제의 급여가 인정된다. 2월에는 다발성골수종 치료제의 급여 확대, 4월에는 출산진료비 지원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다양한 의료 혜택이 주어진다. 또 일반진단서 수수료를 합리화할 방침이다. 현재 일반진단서는 보통 1만~2만원, 경찰서용 5만원, 법원용 10만원 등 가격 차이가 심하다. 앞으로 병원, 제출기관, 용도에 따라 일반진단서 수수료를 변경할 계획이다.

주택기금 통해 내년 5조7천억원 전세·구입자금 지원

보육료와 유아 학비 전액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을 소득하위 50퍼센트에서 70퍼센트로 대폭 확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만 3~5세의 유아 학비 전액지원 대상도 보육료 지원과 동일하게 확

동아DB

보육료와 유아 학비 전액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 맞춤 보육을 제공하는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연세어린이집 모습.

대할 전망이다.

정부는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는 정책도 이어간다. 올해 초 시작한 희망키움통장은 일을 하면 매월 일정금액이 저축돼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 매칭액이 함께 적립되는 제도다.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퍼센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3년 뒤 완료하게 될 경우 적립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벗어나더라도 의료, 교육, 주거 등 각종 지원이 중단돼 탈수급을 기피하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희망키움통장 대상자가 저축을 완료할 경우에도 진정한 자립으로 이어지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노인, 여성, 아동,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지원도 확대된다. 급격한 고령화, 가족 구성의 변화 등으로 노인에 대한 가족 부양 기능이 약화돼 현재 홀몸노인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홀몸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65세 이상 홀몸노인을 대상으로 24시간 안전 확인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해체 현상으로 늘고 있는 한부모·조손가구를 위한 생활안정 및 자립 지원도 계속된다. 최저생계비 1백30퍼센트 가구의 만 12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5만원의 양육비가 지원되며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가 지원된다. 또 내년부터는 조손가족 통합지원 프로그램에 따라 학습 지원을 위한 도우미 파견사업도 시행될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에게는 한국어 교육, 보육, 취업 지원 등을 확대해 다문화가족이 성공적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지원이 확대된다. 수준별 한국어 교육과 다문화사회 이해 교육이 실시된다. 다문화가족의 취업과 창업을 돕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기존 1백59곳에서 내년 2백 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서민의 경제생활을 해치는 분야의 피해 예방도 강화된다. 상조업과 불법 다단계 판매업 등이 그 분야로, 상조업의 경우 현재 3백37개사가 영업 중이지만 이 중 2백96개 업체만 선수금 보전을 위한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정부는 사기성 상거래에 서민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 1월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 미체결업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자 자율 준수 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확대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 및 보호대책을 마련해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다문화가족에게 한국어교육·보육·취업지원 등 확대

서민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강화하는 정책들도 있다. 세제 지원 등을 통해 고용 창출을 유도하고 취업 지원 인프라를 강화하는 고용촉진형 제도 개선이다.

국내 복귀 기업에 외국인 투자기업 수준의 세제 지원을 제공하고 청소·경비업 등 고용유발 효과가 큰 업종은 세제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또 직업소개, 직업훈련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는 '복합 고용서비스 기업'을 도입해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대형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유연하고 탄력적인 선진 고용시스템을 꾸리기 위해 노사관계 선진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복수노조 설립 허용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가 내년 7월부터 시작된다. 주 40시간 근로제 적용 대상은 내년 7월부터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탄력적 시간 근로제도는 내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1개월 또는 1년으로 장기화할 계획이다.

올해 9월 발표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후속·세부대책도 마련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하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납품단가의 현실성을 높이고 하도급법 보호대상을 2차 이하 협력사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어려움을 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효율화, 투자여건 개선 등을 추진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G

글 · 김민지 기자

수출·교육·과학기술 등 균형성장

내수 기반·신성장동력 확충과 과학기술 혁신체계 지원 강화

경제 발전의 중요한 버팀목은 균형이다. 특정 분야 위주의 마구잡이식 팽창이 아니라 내수와 수출, 교육, 과학기술 등 산업 전반의 젖줄 노릇을 하는 잠재 경제요인들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그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성장이 지체된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에 닥칠 재정지출 급증 분야에 대한 대비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그간 위축됐던 내수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창업과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환경 관련 법과 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화를 추진한다. 결국 세계은행(WB)의 기업환경평가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활동 가이드라인에 맞춰 국내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과 투자활동을 촉진하겠다는 의도다.

그간 국내 기업환경은 창업과 투자자 보호에 취약했다. 2010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 따르면, 전체 기업환경은 1백83개국 중 16위 수준이지만, 창업(60위)과 투자자 보호(74위) 등만 놓고 보면 선진국과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보건·의료, 방송·통신, 교육, 에너지 분야의 진입규제 개선도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된다. 현재는 경제적 규제 2천1백79건 중 진입규제가 7백68건(35퍼센트)을 차지해 유망한 기업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 실제 신규기업 진입률은 2002년 20.6퍼센트에서 2008년 12.2퍼센트로 점점 낮아지는 추세다. 당연히 고용 창출률도 2002년 13.7퍼센트에서 2008년 7.6퍼센트로 급감했다.

산업 현장에 적합한 인력 양성도 지속가능한 선진경제로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다. 정부는 기능인력 양성 차원에서 전문계고 학생들의 학비를 지원하고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들의 전문계고 졸업생 채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보건·의료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3단계 진입 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보기술(IT) 융·복합에 따른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법과 제도가 개선된다. 의료법 개정을 통한 U-헬스 활성화, 인터넷 접속만으로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는 주문형 IT 서비스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한 원격진료, e-러닝 서비스 허용, 3D TV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와 표준화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고부가 서비스사업 등 17개 신성장동력 분야 지속 지원

고용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서비스업의 구조개편도 빠르게 추진될 예정이다. 저출산, 고령화, 소득 증가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관광·의료산업과 제조업과의 동반성장이 가능한 컨설팅 등 사업 서비스, 또한 청년인력 활용 여지가 큰 예술·기술 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골자다.

특히 예술·기술산업의 경우 2013년까지 2천억원의 글로벌펀드를 조성해 해외 진출 위주의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녹색성장 등 신성장동력과 과학기술 혁신체제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27개 중점 녹색기술 분야에 대한 범부처 사업 연계 강화를 통해 정책효과를 높이면서 첨단융합산업과 고부가 서비스사업 등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에 대한 시장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핵심은 연구개발(R&D) 지원과 금융 지원, 규제개혁이다. 신성장동력 R&D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범위를 로봇 응용, IT 융합, 차세대 신공정 LCD 기술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지난해 6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신성장동력펀드' 자금에 대해서도 선제적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펀드 조성 규모도 2010년 현재 8천5백억원 수준에서 내년 1조5백억원까지 늘린다.

과학기술 혁신체제도 강화된다. 전체적으로 다수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R&D사업의 성과를 높이

정부는 내년 녹색기술 및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시장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0 녹색·신재생 에너지대전 수출 상담회에서 국내 업체 관계자들이 해외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하고 있다.

동아DB

는 차원에서 추진 체계를 보완하고, 유사·중복 사업을 내실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우선적으로 기술혁신의 밑바탕인 R&D 투자 성과에 대한 질적인 평가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미국의 평가제도인 'STAR-Metrics'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해 기업 수요를 반영한 연구 확대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기업 주관 과제에 가점을 부여한다든지, 부설연구소 설치 기업의 사업 참여를 요건화하기로 했다. 또한 산학기술협력 지주회사를 설립해 대학과 출연 연구소의 벤처 창업도 촉진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개발기술 사업화 자금을 올해 1천5백80억원에서 내년 2천5백80억원으로 늘려 R&D의 확대를 유도한다.

대학 취업률 공개 내실화·전문대학 발전방안 마련

교육 경쟁력, 현장 적합성 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도 구축된다. 대학의 취업률 공개를 내실화하고, 내년 상반기엔 취업역량을 높이는 전문대학 발전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6개소에 현장 산학협력이 가능한 '산업단지 캠퍼스'가 조성되고 전문계고, 전문대,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기술사관 육성 프로그램에 1백40억원을 투입한다.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요자가 훈련과정을 선택하는 '내일배움카드제'를 실업자 훈련과정 전체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되는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을 고령자, 청년 등 취약계층으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능 인력 양성 차원에서 전문계고 재학생(26만3천명)의 학비를 지원하고 공공기관과 금융회사 등의 전문계고 졸업생 채용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미래 세계경제의 급변화에 대비해 재정건전성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 마련과 관련 제도 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우선 내년 말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의료 이용 축소, 약제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책으로 크게는 일과 가정 양립환경을 조성하고, 자녀 양육을 부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육아휴직급여 확대, 보육료 전액지원 대상 확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 수자원 및 식량자원 공급 기반 강화를 위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20년 예상치 대비 30퍼센트) 달성을 위한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논 재배 지원 확대와 종자산업 연구 기반도 다진다.

그간 두꺼운 진입 장벽 등으로 성장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던 영세자영업 등 성장 지체 부문의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신규 자영업종 창업 및 업종 전환을 막는 진입 장벽이 낮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업종 상황을 고려한 맞춤 지원이 늘어난다. 또한 기능성 식품산업 육성과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이 강화되고, 지역 유망 사업과 전통 주력 사업의 지원도 늘릴 계획이다. G

글 · 유재영 기자

시한폭탄과도 같은 비만!

e-건강다이어리와 함께 지금 시작하세요!

비만은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비만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질환, 암 등을 발생시켜
당신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바른 식생활과 규칙적인 운동!
지금 e-건강다이어리(http://diary.hp.go.kr)와 함께 시작하세요.

기 획 특 집

사람과 사람의 '단짝'
소셜미디어

스마트폰이 대표하는 모바일 인터넷기기를 기반으로 한 소셜미디어는 사이버 영역으로 인간관계를 확장하고 사회적 이슈에 따라 집단지성을 형성하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정책을 홍보하는 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개인적 푸념도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고 기업 최고경영자(CEO), 국가 지도자와도 '맞팔'(트위터 사용자가 서로 '친구 맺기'하는 것) 뜰 수 있는 소셜미디어, '미친' 속도로 진화 중인 소셜미디어의 열풍 속으로 들어가보자.

일러스트 · 이우정

소셜미디어는 이제 글로벌 서비스

세계적으로 '소통과 참여' 가능한 소셜미디어 열풍 후끈

'하나 된 세상'이 사이버 세상에서 먼저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가을 아이폰의 공습으로 시작된 스마트폰 열풍에 이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바람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새로운 사이버 공동체를 만들며 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개인사에 대한 교감에서부터 공공의 이슈가 올려지는 거대한 온라인 소통 세상은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오프라인 세상을 보완하는 새로운 선택이 되고 있다.

'구글은 가라. 페이스북이 왔다.'

사이버 세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열풍이 '신의 직장' 타이틀마저 갈아치웠다. 미국 취업정보 사이트인 글래스도어닷컴은 12월 15일 SNS 사이트인 페이스북이 2010년 최고의 직장으로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신의 직장'으로 불리던 인터넷 검색엔진 구글을 제친 것이다.

페이스북의 경사는 이게 다가 아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이날 페이스북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를 2010년 올해의 인물에 선정하며 그가 "페이스북을 통해 전 세계 5억명 이상을 연결했고 이를 통해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꿨다"고 평가했다.

2004년 개설한 페이스북 덕분에 올해 26세인 저커버그는 최소 69억 달러를 가진 세계 최연소 부자가 됐다. 페이스북의 탄생비화를 다룬 영화 〈소셜네트워크〉에서 다소 탐욕스러운 캐릭터로 비쳤던 저커버그는 12월 초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립자와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만든 '기부서약'에 서명하고 생전에 재산 절반을 기부하겠다고 밝혀 '바람직한 젊은 부자' 이미지를 굳히기도 했다.

직장인 스마트폰 보유자 82%, 트위터·페이스북 사용

쌍방향의 '소통과 참여'가 가능한 인터넷 환경 웹 2.0과 스마트폰으로 대표되는 소셜미디어의 발전으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SNS 열풍이 뜨겁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로 대표되는 SNS 가입자는 페이스북이 5억명, 트위터가 1억7천만명(이상 9월 기준)으로 알려졌다.

소셜네트워크 사이트 페이스북 인턴이 페이스북 사용자 5억명의 인맥이 연결된 경로를 추적해 밝은 선으로 표현했다. 미국과 유럽 쪽이 가장 밝으며 한반도에서는 남한 지역만 밝게 보인다.

AFP

우리나라에도 오프라인 관계에 기초한 싸이월드나 상대의 동의를 구해 친구관계를 맺는 미투데이가 있긴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또는 일대 다수의 소통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2, 3년 전부터 국내에 알려졌으나 영어로 된 홈페이지 때문에 보급이 늦어지다 지난해 가을 아이폰 상륙으로 촉발된 스마트폰 붐이 계기가 돼 국내에도 SNS 열풍을 불러왔다. SNS의 '원조격'인 싸이월드나 네이버 블로그 등은 한때 해외에서 더 주목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국내 업체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의 남다른 소통능력을 좇아가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가을 이후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속히 늘어 2010년 12월 현재 국내 스마트폰 가입자가 6백10만명(전체 이동전화 가입자 대비 12퍼센트)에 이른다.

KT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이러한 수치는 내년 1천6백20만명(32퍼센트), 2012년에는 2천5백만명(46퍼센트)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이미 우리나라 직장인의 40퍼센트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고, 이 중 82퍼센트는 트위터 혹은 페이스북 사용자다.

우리나라에서는 페이스북보다 트위터가 좀 더 선호되고 있다. 우리나라 트위터 사용자들은 지난 9월 태풍 곤파스로 인한 폭우나 지난 10월의 부산 해운대 고층아파트 화재 당시 실시간으로 상황을 중계하며 그 속도감과 영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이미 '팔로(follow · 다른 트위터 사용자의 메시지를 읽겠다고 신청하는 것)'나 '맞팔(서로 팔로잉하는 것)'을 못 알아들으면 젊은 층과의 대화에 끼어들지 못한다. 어지간한 기업 CEO나 저명인사, 정치인, 연예인들은 물론 트위터의 '입소문'에 기대어 기업과 공공기관까지 블로그와 트위터를 이용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트위터 팔로어가 몇 명인지는 지명도의 척도가 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SNS 이용률은 세계 4위 수준이다. 미국의 권위 있는 싱크탱크 '퓨리서치 센터'가 12월 15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22개국을 대상으로 페이스북과 마이페이스 등 SNS 이용률을 조사한 결과 한국에서 SNS를 이용한다는 응답자는 40퍼센트로, 미국(46퍼센트), 폴란드(43퍼센트), 영국(43퍼센트)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두드러진 특징이 조사 대상 국가 모두에서 SNS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8~29세 응답자의 81퍼센트가 SNS를 사용하지만 50세 이상에서는 8퍼센트만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SNS를 통해 반영되는 여론이 일부 계층의 의견만으로 편중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SNS, 새로운 소통 수단 아닌 상실했던 커뮤니티의 부활"

특히 1백40자 한도 내 짧은 단문으로 개방성과 속도감이 장점인 트위터는 개방성을 강조한 나머지 원치 않는 정보가 노출되고, 자신도 모르게 불리하게 이용될 수 있다. 특히 리트윗(RT)이라는 기능을 통해 정보가 빠른 속도로 유통되며 피드백이 오가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유포된다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인간사회에서 소통의 기본은 커뮤니티(공동체)였으나 그동안 매스미디어로 인해 전통적 의미의 커뮤니티가 붕괴됐었다"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SNS는 새로운 소통 수단이 등장했다기보다 우리가 상실했던 커뮤니티의 부활인 셈"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SNS는 다양한 의견의 스펙트럼이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사회적 논의 수준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통의 수단만 성장한다면 사회적 혼란과 불필요한 논쟁거리만 야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우리 사회는 SNS라는 새로운 소통 수단의 성장에 걸맞은 성숙이 필요한 시점에 있다. SNS 보급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에서의 사회적 격(格)을 높이는 작업에 더 많은 비중을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G

글 · 박경아 기자

동아DB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로
맺어진 인맥을 '다양한 다수와 맺는 느슨한 결합(Weak-Tie)'이라고 한다. 일상생활 속의 소소한 일들을 공유하며 소통하고, 자신의 인간관계나 생활 속 깊은 속내까지 노출하는 블로그, 싸이월드 등에 비해 관계를 맺고 끊는 일이 훨씬 쉬워졌기 때문이다.

세계인은 지금 SNS와 열애 중

'페북' 하니? '트윗' 하니?

2006년은 SNS 시장에서 잊을 수 없는 해다. 트위터가 3월에 오픈했고, 그 뒤를 이어 회원 가입에 제한을 두던 페이스북이 전 세계인을 상대로 영역을 넓히면서 SNS 붐이 일었다. 그로부터 5년, 우리나라 사용자들이 선호하는 SNS 현황과 SNS로 인해 생긴 포털 내의 지각변동에 대해 알아봤다.

서비스 오픈 7년여 만에 세계 최대 인터넷 인맥 네트워크로 발돋움한 페이스북의 가입자 수는 전 세계 6억명에 육박한다. 우리나라에서도 2백50만명 이상(2010년 12월 15일 기준, 페이스베이커스 제공)이 이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지 않고도 글과 사진을 동시에 올릴 수 있어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하버드대 2학년 재학 당시 페이스북을 개발한 마크 저커버그는 페이스북의 기업 가치를 4백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시켜 〈타임〉지가 선정한 '2010년 올해의 인물'에 선정됐다. 데이비드 핀치의 영화 〈소셜네트워크〉의 모델이 됐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가입자 수는 페이스북에 밀리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SNS 서비스를 꼽으라면 단연 트위터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만 약 2백30만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12월 15일 기준, 트위터 코리안인덱스 제공) 트위터는 1백40자 이내의 단문 입력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에 걸리는 속도가 블로그보다 상대적으로 빠르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글을 올리고 곧바로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할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트위터를 정치, 경제와 관련한 토론장으로 활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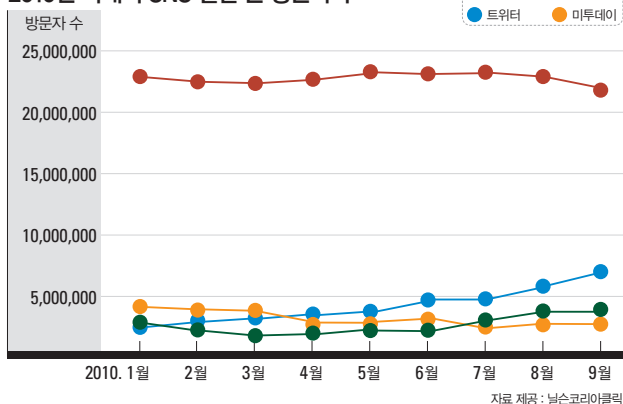
트위터를 정치·경제와 관련한 토론장으로 활용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비해 가입자 수는 떨어지지만 국내 사용자들의 만족도에선 결코 뒤지지 않는 국산 SNS인 미투데이도 점점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바쁜 블로거들을 위해 태어난 블로그'를 표방하고 있는 미투데이는 트위터보다 10자가 더 많은 1백50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 초기에는 트위터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미투데이 이용자인 가수 호란은 본인의 미투데이를 통해 "트위터는 창구, 미투데이는 공간의 느낌"이라며 "트위터는 개인주의적인 서구권에서 만들어진 티가 나고, 미투데이는 '내 사람'을 원하는 동양권의 감성이다"며 차이를 정의한다.

SNS 사용자들의 특징은 한 명이 여러 개의 소통 창구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업데이트 확인부터 똑같은 메시지를 여러 채널에 올려야 하는 등 여러모로 번거로운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포털 3사는 SNS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는 '소셜허브'를 발표해 글로벌 서비스에 밀린 SNS 시장을 되찾기 위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2010년 국내외 SNS 월별 순 방문자 수

자료 제공 : 닐슨코리아클릭

다음커뮤니케이션은 다음 카페, 블로그, 마이크로 블로그 '요즘' 등에 자신이나 친구들이 올린 콘텐츠를 찾을 수 있는 '마이소셜검색' 서비스를 시작했다. 검색 설정에서 마이소셜검색 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선택한 후 로그인 상태에서 검색을 하면 된다. 향후 다음 프로필의 소셜링크 설정을 통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으로 검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포털 3사 SNS 플랫폼 역할 '소셜허브' 발표

NHN은 12월 15일부터 '네이버Me'의 오픈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네이버Me'는 개인화 웹서비스와 SNS가 결합된 형태의 새로운 홈으로 블로그나 카페, 미투데이 등에 업데이트된 내 소식과 친구들의 새 글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e메일, 가계부, N드라이브 등의 개인화 서비스도 한곳에서 관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Me의 사용이 확산되면 현재 가입자 수 4백만명을 육박하고 있는 미투데이와 상승효과를 이뤄 현재 다음에 뒤지고 있는 모바일 시장에서도 업계 1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페이스북보다 5년이나 앞선 원조 SNS인 싸이월드를 보유한 SK커뮤니케이션즈는 '넥스트 싸이월드'로 알려진 ⓒ로그를 통해 싸이월드의 명성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로그는 여러 면에서 페이스북과의 공통점이 지적되는데 페이지 이동 없이 일촌의 업데이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모아보기' 서비스는 페이스북의 '뉴스피드' 기능을, 관심 있는 콘텐츠를 친구들과 공유하는 '공감' 기능은 페이스북의 '좋아요(I like this)' 기능과 다를 바 없다. 대신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부분을 강화해 페이스북과 차별을 뒀다. 원하지 않는 상대에게까지 내 정보가 노출됐던 페이스북과는 달리 친구추천 서비스에 제외 설정을 하면 의도하지 않은 친구 검색을 피할 수 있다. G

글 · 이윤진 기자

트위터에 빠진 스타들

최고의 트위터 '소설가 이외수'

SNS가 소통의 주요 수단으로 부각되면서 대중이 쉽게 다가갈 수 없었던 유명인사들이 자신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전하며 팬들과 쌍방향 소통을 나누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트위터 사용자를 꼽으라면 단연 소설가 이외수(사진) 씨다. 12월 15일 기준으로 52만2천8백6명의 팔로어를 가진 그는 현재 국내 최고의 트위터 스타로, 그가 트위터에 남긴 글을 모은 '트위터 어록'은 에세이집(아불류 시불류)으로 출간됐을 정도다. 팔로어 33만7천1백18명인 방송인 김제동이 그 뒤를 이어 유명인 트위터리안 2위, 연예인 트위터리안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김제동은 트위터 가입 초기에 단 2개의 트윗으로 2만 팔로어를 확보한 트위터계의 '전설'이기도 하다.

연예인 트위터리안 10위권을 살펴보면 김제동 이외에는 전부 아이돌 그룹 멤버들이 차지하고 있다. 아이돌 그룹의 팬인 신세대가 SNS의 주 사용자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다. 슈퍼주니어의 동해가 팔로어 33만6천3백26명으로 연예인 트위터리안 2위를 기록한 가운데, 김희철, 최시원, 닉쿤, 조권, 김재중, 신동, 박유천, 이특이 톱10을 이룬다.

아이돌은 아니지만 DJ DOC의 김창렬을 비롯해 하하, 남희석 등이 트위터 '번개'(깜짝 만남)를 통해 팔로어들과 술자리를 함께하며 허물없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소셜미디어에 빠졌을까? 최영일(44) 사이버문화연구소 이사는 "사생활을 공개하지 않고도 자신의 진정성을 담아 대중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일 것"이라며 "인기 연예인들의 특성상 늘 바쁜 스케줄에 쫓기는 경우가 많은데 SNS상에서는 업데이트 시점을 스스로 조정해 대중과의 접촉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도 편리하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위터 순위 사이트** www.twtagora.com

토막상식

페이스북에서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미국의 소비자 전문 잡지 〈컨슈머리포트〉는 페이스북에서 하지 말아야 할 7가지를 제시했다. 쉬운 비밀번호 사용하기, 생일 전체 공개하기, 개인 정보 설정(Privacy Control) 무시하기, 아이들 이름 노출시키기, 외출했다는 것 알리기, 검색 엔진에 노출시키기, 어린이들이 페이스북을 사용하도록 허용하기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비밀번호를 해킹당할 경우, 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람들이 자신의 계정을 훔쳐 친구들에게 스팸메일을 대량 발송하는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 페이스북은 계정을 훔치는 스패머들에게 늘 목표가 되는데, 페이스북에서는 자신의 계정이 다른 곳에서 로그인되었을 경우 알림을 해주는 기능과 원격지에서 접속한 다른 로그인 정보의 IP, 브라우저, 운영체제 등을 확인해서 강제로 로그아웃시키는 기능 등을 추가하면서 보안 강화에 나서고 있다.

유행 넘어 일상화된 소통 창구

초보자들이 궁금해하는 '소셜미디어 세계'의 모든 것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소셜미디어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선정한 '2010 10대 히트상품'에 선정됐다. 이는 소셜미디어가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 일상화된 소통 창구로, 새로운 마케팅 도구로 자리 잡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지 않는 이들에게 여전히 소셜미디어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나라'일 뿐이다. 소셜미디어 초보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아봤다.

Q1 소셜미디어(Social Media)란 무엇인가요.

A 가이드와이어 그룹 창업자인 크리스 시플리가 처음 사용한 용어로, 자신의 생각과 의견, 경험, 관점, 정보 등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양방향성 온라인 툴과 미디어 플랫폼을 소셜미디어라고 합니다. 지식과 정보의 민주화를 지원하며 사람들을 콘텐츠 소비자에서 콘텐츠 생산자로 변화시킨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신문, 잡지, 방송 등 기존 미디어를 소셜미디어 등 뉴미디어와 상대적인 개념으로 보고 '올드 미디어(Old Media)'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Q2 소셜미디어와 SNS는 다른 개념인가요.

A 소셜미디어를 크게 나누면 블로그(Blog),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 · Social Networking Service), 참여형 백과사전(위키피디아 · Wiki), 사용자손수제작물(UCC), 마이크로 블로그(Micro Blog) 등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SNS는 소셜미디어의 일종으로 온라인 인맥구축 서비스입니다. 1인 미디어, 1인 커뮤니티, 정보 공유 등을 포괄해 참가자들이 서로에게 친구를 소개하거나 조건에 맞는 친구를 검색해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커뮤니티형 웹서비스를 이릅니다.

일러스트 · 이우정

Q3 트위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A 소셜미디어의 대명사처럼 불리는 트위터(Twitter)는 무료 소셜네트워킹서비스로, 1백40자 이내의 짧은 문장에 한해 지역 제한 없이 전 세계 이용자들과 실시간으로 대화를 나누거나 친구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트위터를 이용한 홍보가 큰 역할을 하면서 더욱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Q4 향후 SNS에서 위치 기반 서비스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A 위치정보와 SNS를 결합해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지도 위에 기록,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위치 기반 소셜네트워크서비스(LBSNS · Location Based Social Network Service)'라고 합니다. 글과 사진을 어디에서 올렸는지 기록하는 기본적인 기능부터 사용자 위치에서 맛집, 친구 등을 추천 검색하는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역 기반의 마케팅에 유용해 네이버, 네이트온 등 각 포털들이 향후 유망한 광고시장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Q5 소셜마케팅의 장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A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업의 브랜드, 상품 등을 광고 선전하거나 소비자가 자신의 의견을 기업 측에 적극적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통틀어 소셜마케팅(Social Marketing)이라고 합니다. 공급자와 소비자가 상호작용하는 양방향적 마케팅으로 저렴한 마케팅 비용, 빠른 전파력, 소비자의 요구에 대한 신속한 파악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Q6 소셜미디어와 소셜커머스의 관계를 알려주세요.

A 소셜마케팅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상품의 구매로 연결하는 것을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알려진 소셜커머스는 SNS를 활용한 '공동구매형' 전자상거래지만 SNS를 통한 제품 홍보, 쇼핑몰 게시판과 SNS의 연동, 페이스북 등 SNS에 상점을 개설하는 것 모두 소셜커머스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Q7 스팸메일 필터처럼 SNS상에서 유통되는 부적절한 정보들을 차단할 방법이 있나요.

A 모든 정보의 자율적 공개를 기본으로 하는 SNS의 성격상 아직까지 정보 차단기능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보의 생산, 유통, 수신' 과정에서 사생활 침해 등 부적절하거나 왜곡된 정보라고 판단된 정보에 대해 이용자 스스로 확산을 차단한다는 소셜필터(Social Filter) 등 올바른 SNS문화 정착을 위해 자체 정화기능을 강화하려 노력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G

정리 · 이윤진 기자

아리송한 트위터 용어

트위터 용어 이것만은 알자

다른 SNS에 비해 유독 복잡하고 아리송한 용어, 약어가 많다는 점 때문에 많은 미사용자들이 트위터를 낯설어한다. 초보자가 알아두면 편리한 트위터 용어들을 정리했다.

트윗(Tweet) 1백40자 이내의 단문메시지를 트위터상에 올리는 것.
팔로잉(Following) 내가 상대방을 트위터상의 친구로 추가하는 것. 반대로 나를 친구로 추가하는 사람은 팔로어(Follower)라고 한다.
리트윗(RT · Retweet) 내 글 혹은 친구의 글을 팔로어들에게 전달하는 것.
멘션(Mention) 상대방이 내 트위터 아이디를 넣어 쓴 글.
맞팔 서로 팔로잉하는 것.
언팔 서로 팔로잉을 삭제하는 것.
트위터리안(Tweeterian) 트위터를 즐기는 사람. 단순히 트위터를 사용하는 사람은 트위플(Tweetple), 트워슨(Twerson)이라고 한다.
트위텁(Tweetup · Tweeter+Meeup) 트위터상의 만남이 오프라인으로 이어진 것.
블록(Block)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를 팔로잉하는 것을 차단하는 기능.
해시태그(#태그 · Hashtags) 주제어 앞에 #를 붙여 주제어 검색 시 자신의 트위터가 노출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일종의 태그.
봇(Bot) 로봇을 뜻하는 단어로 '엄마, 아빠, 애인' 등 트위터상에서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트윗봇넷' 같은 봇 생성 사이트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봇을 만들고 사용할 수 있다.
구루(Guru) 인도의 힌두교, 불교 등에서 '자아를 터득한 신성한 교육자, 스승'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던 단어로, SNS 내에서 다수의 팔로어(추종자)를 보유하며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문가를 이른다.
TGIF 소셜미디어의 대표주자인 트위터(Twitter), 구글(Google), 아이폰(Iphone), 페이스북(Facebook)의 알파벳 첫 철자를 딴 신조어.
텔올 세대(Tell-All Generation) 인터넷을 통해 자신의 일상생활을 온라인상에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30세 미만의 젊은 계층을 텔올 세대라고 한다.

동아DB

지난 5월 상공회의소가 국내 4백3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활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55퍼센트가 소셜미디어를 신(新) 미디어로 주목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기업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비즈니스 전략으로 소비자와 소통하는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통해야 기업 신뢰 이미지 올라간다

소셜미디어 창구 통해 소비자와 기업 일대일 만남 가능

과거에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날 일이 없었다. 광고나 애프터서비스(AS)를 통해 소비자가 기업을 판단해왔다. 그러나 이젠 아니다. 기업이 열어놓은 소셜미디어 창구를 통해 일대일 만남이 가능하다. 소셜미디어의 출현이 기업의 비즈니스 판도를 확 바꾼 것이다.

"안드로이드 유저님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안드로이드용 이마트 애플리케이션 3종이 드디어 이번 주 출시될 예정이랍니다. 앞으로 앱 개발 시에는 안드로이드 유저님들을 위한 앱을 함께 출시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12월 14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자신의 트위터(@yjchung68)에 올린 내용이다. 인터넷 검색창에 '정용진'이라고 치면 '정용진 트위터'가 자동 검색될 정도로 그는 대표적인 트위터리안(트위터를 자주 하는 사람)이다. 8만명이 넘는 팔로어를 거느리는 그는 트위터로 직접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기업을 알리고 사회 이슈나 일상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근감 있는 최고경영자(CEO)로 거듭났다.

정용진 부회장 외에도 박용만(@solarplant) 두산 인프라코어 회장, 표현명(@hmpyo) KT 사장도 대표적인 트위터 마니아다. 이렇듯 기업 CEO들이 트위터와 같은 소셜미디어 이용에 앞장서는 까닭은 소셜미디어를 통한 고객과의 '관계'가 기업 비즈니스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블로그,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 대표적인 소셜미디어는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매스미디어다. 하나만 알려도 열을 알릴 수 있는 막강한 소셜미디어의 파급력은 기업들의 비즈

니스 전략을 바꿔놓았다. 단순히 마케팅, 홍보에서 벗어나 영업, 고객관리, 지식경영, 연구개발, 임직원 관계 등 다양한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종합경제지 〈포춘〉은 "최근 1백대 기업 79퍼센트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을 정도로 기업 비즈니스에서 소셜미디어가 차지하는 부분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 대표적인 기업은 바로 컴퓨터 제조업체인 델(Dell)이다. 미국 경제뉴스 방송 〈CNBC〉에서 '트위터 잘하는 기업' 1위를 차지한 바 있는 델은 한 블로거의 글로 소셜미디어의 영향력을 깨달았다.

美 경제지 〈포춘〉 "100대 기업 79%가 소셜미디어 활용"

2005년 미국의 영향력 있는 블로거 제프 자비스가 자신의 델 컴퓨터 수리 과정에서 겪었던 불만을 '델은 형편없다'라는 글로 블로그에 올리면서 큰 화제가 됐다. 이 글은 온라인 미디어를 거쳐 신문에 보도됐고 델의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결국 경영진이 직접 사과함으로써 마무리됐다.

이 사건을 겪은 다음 델은 달라졌다.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는 동시에 기업 블로그를 개설해 직접 소통에 나선 것이다. 이후 델은 '델 아웃렛(@DellOutlet)'이라는 계정을 통해 특별할인, 재고 정리, 쿠폰 제공 등의 판촉을 벌여 트위터에서만 연간 34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올해 북미지역 항공사 만족도 1위를 차지한 저가항공사 제트블루(@jetblue) 역시 2007년부터 트위터를 활용해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회사다. 어느 고객이 "짐을 부치려고 하자 카운터에 직원이 없다"고 트위터에 올리자 회사는 즉각 조치를 취했다. 또 편도항공료가 9달러에 불과한 이벤트 상품 판매를 트위터에 공지하자마자 당일 저녁 관련 상품이 매진되는 결과를 얻었다.

펩시는 23년간 지속했던 슈퍼볼 TV 광고를 올해 처음으로 중단했다. 대신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에 광고를 집행했다. 이탈리아 명품 패션 브랜드 돌체앤가바나는 지난해 가을 패션쇼에 4명의 유명 패션 블로거를 초청해 그들의 감상 소감을 블로그와 트위터에 실시간으로 올리도록 했다.

기업들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빠르고 저렴하며 수많은 고객과 만날 수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기업 이미지를 친숙하게 만들고 기업의 신뢰도를 쌓을 수 있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여긴다.

12월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유통산업 기술 비즈니스 소비자 동향 및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도 '소셜미디어가 기업의 신뢰 구축에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삼성전자

2010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을 차지한 삼성전자는 임직원 블로거들로 필진을 운영해 기업 안팎으로 소통하고 있다.

최재용 MD 코리아 컨설팅 대표는 "미국 페이스북 사용자의 68퍼센트가 페이스북 친구가 추천한 상품을 구매할 용의가 있다고 응답했다"며 "소비자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기업을 신뢰하고 소비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소셜미디어 열풍이 불며 기업 비즈니스 전략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추세다. 12월 3일 지식경제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커뮤니케이션협회는 '2010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 대상'을 통해 각 부문별로 소셜미디어 활용도가 높은 기업 40개를 선정했다.

그중 눈에 띄는 기업은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6개의 상을 받은 삼성전자다. 올해 2월부터 블로그와 트위터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내 최초로 '소셜미디어 뉴스 릴리스(SMNR)'를 실시해 다양한 콘텐츠를 소개하며 방문자가 9백퍼센트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소셜미디어 활용해 수많은 고객 빠르게 만날 수 있어"

한글 서체를 개발하는 중소기업으로 잘 알려진 산돌커뮤니케이션 역시 소셜미디어 활용에 앞장서고 있다.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서체 관련 정보를 제공하면서 디자이너와 대학생을 중심으로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다.

현대증권의 경우 증권사 최초로 '현대리, 과장만들기' 블로그 서비스를 실시해 고객에게 금융 관련 콘텐츠를 쉽고 재미있게 제공하고 있다. 현대증권 블로그는 블로그 마케팅의 대표사례로 다른 기업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인터넷커뮤니케이션협회 박영락 회장은 "소셜미디어 활용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기업 비즈니스에 접목되는 추세"라며 "아직 걸음마 단계지만 과거 웹사이트 10년의 위력을 3, 4년밖에 안 된 소셜미디어가 차지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앞으로 기업과 소비자가 소셜미디어라는 소통의 장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G

글 · 김민지 기자

'양날의 검' 잘 쓰고 계십니까

개인정보 유출·사기 피해 등 소셜미디어로 인한 피해 막으려면

요즘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는 소셜미디어를 흔히 양날의 검으로 부르곤 한다. 시간, 장소의 구애 없이 세상과 자유로운 소통이 가능하지만, 이 미디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에게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셜미디어와 이를 통해 전파되는 콘텐츠, 정보의 활용에서 약과 독의 경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1 얼마 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사는 김정란(가명·30)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 때문에 큰 봉변을 할 뻔했다. 김 씨는 무심코 자신의 트위터에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고 밤 10시쯤 귀가한다는 글을 올렸다. 집으로 데리러 온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도 올렸다. 그런데 김 씨를 수년간 스토커처럼 쫓아다녔던 남성이 김 씨의 트위터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집 앞에서 기다렸던 것.

김 씨 모르게 트위터 팔로어로 등록한 그 남성은 글 내용을 확인하고 사진을 통해 집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기치 않게 집 앞에서 문제의 남성과 마주친 김 씨는 자칫 위험스런 상황에 몰릴 수 있었으나 지나가던 주민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 후 외출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태다. 트위터 계정을 삭제하는 등 모든 소셜네트워크 활동을 중단하고, 오로지 스마트폰은 발·수신 전화로만 이용하고 있다. 아예 이사 갈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김 씨는 "설마 했지만 내가 피해자가 될 줄은 몰랐다. 지금으로선 내 이름까지 바꾸고 싶은 심정"이라며 놀란 가슴을 진정하지 못했다.

#2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사는 강정식(가명·35) 씨는 최근 트위터를 하다 소위 '신상 털기'를 당했다. 트위터 팔로어가 보낸 다이렉트 메시지에 적힌 사이트 주소를 클릭했는데, 알고 보니 모든 팔로어에게 전송된 무작위 '피싱' 메시지였던 것. 무심결에 아이디까지 입력한 강 씨는 아차 싶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그 뒤로 강 씨는 스마트폰에 하루에도 수십 개 이상 날아드는 사금융 대출 안내 전화와 유흥업소 홍보 문자메시지에 시달리는 형편이다. 전화를 받으면 대출 안내자는 이미 강 씨의 재정 상황을 작심하고 파악한 듯 대출 관련 상품 선전에 열을 올린다. 일과 시간에도 수없이 걸려오는 이런 전화와 문자메시지 때문에 그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처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발생하는 갖가지 부작용은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에 대한 피싱 공격과 개인정보 유출, 이에 따른 신종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한 예로 미국에 본사를 둔 컴퓨터 보안업체 시만텍이 지난 11월 전 세계 스팸 및 피싱 동향을 조사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스팸 양은 줄어들고 있는 대신 10월 소셜미디어 피싱 사이트 수는 전월 대비 무려 80퍼센트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 등은 또 다른 2차 피해를 낳기도 한다.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은행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까지 유출되는 경우엔 경제적으로나 사이버 스토킹을 통해 신변에 심각한 피해가 야기될 수도 있다.

루머 확산으로 자살하는 사례도 단적인 예다. 지난 10월 미국 뉴저지에선 바이올린을 전공한 한 동성애자 대학 신입생이 같은 방을 쓰는 친구가 자신의 동성애 장면을 촬영해 트위터에 올려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알게 되자 수치심을 이기지 못하고 다리에서 뛰어내려 자살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소셜미디어의 접근 자체에 따른 압박감, 정신적 스트레스도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의 단면이다. 실제 올해 5월 삼성그룹이 임직원 1천7백8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블로그나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직원 1천69명 중 20.41퍼센트(2백18명)는 '자신의 소중한 콘텐츠나 개인 신상에 관한 내용이 떠돌아다니는 게 꺼림칙하다'고 응답했다.

합법적 SNS 웹사이트라도 사진·댓글·알림창 등 의심해야

또한 31.41퍼센트(3백37명)는 '새 글이 올라왔는지, 누가 답글을 남기지는 않았는지 신경이 많이 쓰이고 자꾸 확인하게 된다'고 답했다. 편리해서, 좋아서 한다는 소셜미디어의 접촉이 다른 한편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오는 셈이다.

그렇다면 소셜미디어 이용에 따른 부작용을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 소셜미디어는 거의 완벽하게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

동아DB

'양날의 검'과 같은 소셜미디어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각별한 개인정보 관리와 보안 준수가 필요하다.

스마트폰 정보 보호용 앱 내려받으세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12월 8일부터 정보 보호 일반상식, 실천방법 등을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정보 보호 앱을 배포했다. 정보 보호와 관련해 처음으로 출시된 이번 앱에서는 주요 사이버 보안 일반상식과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천방법을 제공하며, 해킹 및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24시간 무료 상담(118 e-콜센터)을 받을 수 있다.

정보 보호 앱은 아이폰(OS 4.1 이상), 안드로이드폰(OS 2.1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애플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마켓, T스토어에서 '정보 보호' 단어로 검색 후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요하다. 우선 스팸이나 피싱 공격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보이는 e메일 또는 인스턴트 메시지라도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할 경우엔 절대 응하지 않는 게 좋다.

의심스러운 e메일에 첨부된 링크도 절대 클릭해선 안 된다. 정 확인하고 싶으면 직접 주소창에 URL을 쳐보면 된다. 또한 안티 피싱 기술을 지원하는 인터넷 보안 솔루션을 설치하고, 보안 정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게 필수 조건이다.

합법적인 SNS 웹사이트라 할지라도 사진 관련 댓글, 알림창 등이 전송되는 경우엔 한번 의심해봐야 한다. 인기 게임 등을 제공하겠다는 애플리케이션 정보도 위험 소지가 높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트위터 계정을 만들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으며, 트위터에 글을 작성할 때도 휴대전화 번호와 같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보안 취약점이 있을 경우 악성코드 감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위터 접속 전에 자신의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의 보안 패치를 설치해놓아야 한다.

한편 정부도 'SNS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인터넷 이용자 3천7백만명의 65퍼센트 선인 2천4백30만명으로 추산되는 SNS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른 SNS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했다. SNS 업체들이 사용자들의 이용약관 동의를 통해 얻은 사용자의 주소록과 SNS에서의 친구 관계, e메일을 주고받은 관계 등으로 서비스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원치 않는 형태로 정보가 유출될 때 그 피해를 빠르게 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트위터 계정 등록 때 아이디·비밀번호는 다르게 설정

특히 12월 8일엔 글로벌 사업자인 페이스북이 '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개인 보호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개선을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밝힌 문제점은 ▲회원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미비 ▲개인정보의 취급 위탁에 관한 고지 및 동의 절차 미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시 이용 목적,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의 미고지 ▲개인정보 '취급 방침'이 영문으로 제공되며, 이용자 권리 및 행사 방법 등의 필수 고지사항 중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것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대해 30일간의 시한을 둬 페이스북 측에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NS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도 높이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 김광수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학계, 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통해 'SNS 개인정보 보호 수칙안'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

글 · 유재영 기자

정책 소통 '스마트'한 공공기관 확산

국토해양부·통계청·농림수산식품부 등 국민 소통 적극

청와대와 농림수산식품부 트위터에는 3만명이 넘는 팔로어가 있고 국토해양부, 통계청, 통일부 등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이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은 올바른 정책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 형성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한다.

서울시

서울시는 트위터에서 하이서울 청춘남녀 번개팅을 주선해 큰 호응을 받았다. 서울시는 내년 1월 24일까지 트위터에 올라오는 시민의 소망이나 의견을 선정해 실현해주는 '소원을 말해봐~! 트위터 서울마니아가 들어줄게' 행사를 하고 있다.

이제 공공 부문에서도 소셜미디어의 도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다. 공공기관의 입장에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올바른 정책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 형성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림으로써 긍정적인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소셜미디어&웹서비스 전략연구소 이스토리랩이 지난 3월 실시한 '트위터 고객 요구 조사'에서 기업 및 공공기관 트위터에 참여하는 이유로 48퍼센트가 '관계 유지', 22퍼센트가 '정보제공'을 들었고, 기업 및 공공기관 트위터 진입에 대해서는 48퍼센트가 '찬성한다', 21퍼센트가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공공기관 SNS 계정 개설, 정책정보 전달·의견 청취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용하고 있는 소셜미디어에 공공부문이 함께하고 있다는 데 호의적이며, 공공기관에 질문이나 민원 등을 전달하고 피드백을 제공받음으로써 서비스에

대한 만족과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많은 공공기관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개설해 정책정보를 전달하고 현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이 가운데는 팔로어가 수만명이 넘을 만큼 활성화된 곳도 있다.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스마트'한 곳은 어디일까.

홍보 전문 잡지 〈The PR〉은 12월호에서 40개 정부기관 가운데 올 한 해 '스마트'한 정책홍보를 전개한 곳을 선정해 발표했다. SNS 부문과 온라인 부문을 통틀어 통계청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대상 수상기관으로 선정됐다. 통계청은 '2010 인구주택총조사'를 인터넷으로 실시하면서 당초 목표 30퍼센트를 넘는 47.9퍼센트를 기록했다. 이는 지금까지의 인터넷조사 참여기록인 캐나다의 18.5퍼센트보다 훨씬 높은 세계 신기록이다.

통계청은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해 젊은 세대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통계를 활용한 재미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트위터에는 '월 소득 어느 정도면 만족할까'와 같은 흥미로운 통계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SNS 부문 최우수상에는 1만2천1백여 명의 팔로어가 있는 공식 트위터를 포함해 '보금자리주택', '4대강살리기', '국가교통정보', '남극세종기지' 트위터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정책 홍보를 하고 있는 국토해양부가 선정됐다. 국토해양부는 또 트위터, 미투데이 등 SNS를 단일창구로 통합한 소셜홈도 개설해 시대 변화에 맞는 홍보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소셜미디어 소통 강화 위해 공무원 대상 교육과정 개설

우수상은 농림수산식품부로 3만3천6백여 명의 팔로어가 있는 트위터 운영 등 뉴미디어를 활용한 소통과 농식품산업에 대한 인식 개선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통일부도 중앙부처 최초로 페이스북 계정 개설, 종합적인 소셜미디어 채널 구축 등 적극적인 뉴미디어 홍보활동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특별상을 수상한 청와대는 온라인 대변인제를 신설하는 등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과 적극적으로 쌍방향 소통에 나서 국정 홍보를 한 차원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6월에 문을 연 청와대 트위터는 정부기관 중 가장 많은 3만9천여 명이 넘는 팔로어가 있다.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도 SNS 활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서울시는 11월 16일 한국인터넷커뮤니케이션즈협회가 발표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공공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많은 공공기관들이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등 SNS 계정을 개설해 정책을 알리고 현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대전시는 각 부서 및 산하기관에 총 19명의 트위터 담당자를 두고, 트위터에 올라오는 각종 민원과 정책 건의에 회신하고 있다. 또 팔로어가 3백명 이상인 '파워 트위터리안' 20명으로 구성된 '대전드림 서포터스'를 발족해 시정 소식을 전하는 한편 시정 개선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있다.

충남도 트위터는 팔로어가 2만명이 넘고, 경기도 트위터도 1만2천9백여 명의 팔로어가 있는 등 도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교육과정을 개설하기도 했다.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5급 이상 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1기 과정을 진행했다. 중앙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과 이상호 사무관은 "양방향 소통의 정책 홍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정보화진흥원 정원모 책임연구원은 "공공 분야에서의 SNS 도입과 활용은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라며 "인적 자원이 가장 큰 밑천인 우리나라에서 소셜네트워킹을 통해 서로 생각과 비전을 공유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정말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이혜련 기자

문화콘텐츠 성장, SNS에 물어봐!

유튜브 등 입소문 통로 확산… "콘텐츠 개발에도 신경 써야"

트위터,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문화콘텐츠 소비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보와 모니터링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최근 세미나를 열어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동아DB

트위터와 연동되는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 '트윗온에어'가 아이폰으로 경기방송의 라디오 방송 현장을 생중계하고 있다. 오른쪽은 트윗온에어 홈페이지.

2005년 닻을 올린 소셜미디어 '유튜브'는 현재 하루 시청 건수가 전 세계 20억명에 달하는 글로벌 미디어로 성장했다.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개개인이 만든 손수제작물(UCC)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드라마나 뮤직비디오 같은 문화콘텐츠를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국내 드라마와 가수들도 유튜브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 〈겨울연가〉, 〈풀하우스〉 등 많은 드라마들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영어 등으로 번역된 자막을 달고 세계 각국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인기그룹 소녀시대의 'Gee' 뮤직비디오는 조회 수가 3천만 건을 넘어섰다. 태국, 칠레, 포르투갈 소녀들이 각각 소녀시대, 2NE1, 티아라 등 국내 걸그룹의 노래와 춤을 따라한 UCC도 화제다. 이들 동영상은 소셜미디어의 파급력을 엿볼 수 있는 사례로 꼽힌다.

트위터와 방송을 결합한 실시간 방송 애플리케이션도 등장했다. 방송 솔루션 전문업체 아이쿠가 서비스하는 '트윗온에어(www.twitonair.com/info/guide)'다. 트윗온에어는 카메라를 PC에 연결하거나 스마트폰 탑재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트위터를 통해 생중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간단하게 서비스를 실행시키고 '방송 시작' 버튼만 누르면 내가 촬영하는 영상이 그대로 트위터에서 생중계된다. 트위터 계정(@twitonair)이 있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아이폰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실시간 방송 및 녹화 영상 링크 주소와 이를 옮길 수 있는 소스를 공개해 다른 사이트에서의 방송 시청 기능도 지원한다.

문화콘텐츠 소비자, 홍보·모니터링 등 품질 향상 기여

쌍방향 소통은 기본이고 미디어 기능도 하는 소셜미디어는 이처럼 갈수록 진화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고받는 사소한 일상에 대한 의견이 나비효과처럼 커져서 세상을 바라보는 잣대가 되기도 하고 쉽게 잊힐 수 있는 내용이 일파만파로 퍼지며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한다. 특히 소셜미디어는 홍보, 마케팅뿐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 수집과 냉철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지난 1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진화에 따른 문화콘텐츠산업의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열었다. 이 행사에서는 관련 분야의 대표적인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해 소셜미디어 시대를 맞은 문화콘텐츠산업의 기회와 위협요인을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했다.

지난 4월 오픈한 SNS인 런파이프의 이동형 대표는 "소셜미디어의 등장으로 입소문이 체계화되고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를 명확히 구분하던 구조에서 벗어나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이고, 소비자이면서 미디어 노릇을 하는 존재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소비하면서 이에 대한 평가나 소개를 주위에 하는 것을 즐기고 이를 통해 존재감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런 소비자를 '참여자'라고 규정하면서 "참여자가 많아지면 콘텐츠에 대한 품질 평가가 더 명확히 이뤄진다. 참여자는 콘텐츠의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에도 영향을 주는 존재로 거듭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SNS는 콘텐츠 제작·유통·소비 환경 만들 수 있을 것"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옥성수 책임연구원은 "소셜미디어가 발달함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와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인터넷상의 서버를 통해 데이터 저장, 네트워크, 콘텐츠 사용 등 정보기술(IT)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컴퓨팅 환경이다. 마이크로소프트, IBM도 클라우드 컴퓨팅을 중요한 전략으로 인식하고 이 시장에 진출했다. 2미터 크기의 클라우드 컴퓨팅용 장비 한 대는 10만 기가바이트를 저장할 수 있고 기업용 서버 3백 대분의 용량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다.

옥 연구원은 "효율성 면에서도 클라우드 컴퓨팅의 미래 주도는 확실시된다"며 "뉴욕타임스는 지난 1백30년간 발행한 신문을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면서 1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 일을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단돈 2백40달러를 들여 하루 만에 처리했다"고 소개했다.

KT 경제경영연구소 송민정 수석연구원은 "문화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부문의 전략적 수단으로서 SNS 활용 가능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며 "앞으로 SNS는 영화, 방송 등 문화콘텐츠와 융합해 콘텐츠, 미디어, 기술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새

조영철 기자

소녀시대의 히트곡인 'Gee'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3천만 건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로운 방식으로 콘텐츠 제작, 유통, 소비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환경을 적극 활용해 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면 SNS가 방송 프로그램이나 게임, 음악 등 신규 제작물에 대한 입소문 마케팅 통로로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 문화콘텐츠의 공급 과잉으로 SNS의 활용 가치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점 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콘텐츠경영연구소 송인수 팀장은 새로운 SNS 환경에서 우리 문화콘텐츠산업이 가지는 강점으로 높은 수준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조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콘텐츠의 홍보와 유통을 시도해온 경험과 싸이월드, 인터넷카페, 블로그 등 SNS 산업이 일찍 발달해 산업 주체와 소비자 모두 SNS 환경에 익숙하다는 점을 들었다. 컴퓨터그래픽(CG) 등 경쟁력 있는 문화콘텐츠 기술을 보유한 점도 강점으로 꼽혔다.

반면 충분한 투자와 고급 인력을 확보하기 힘들고, 해외시장 진출에 꼭 필요한 킬러 콘텐츠가 부족한 것은 약점으로 지적됐다. 송 팀장은 "한류를 기반으로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인지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성공했으나 한국을 인식시킬 킬러 콘텐츠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SNS를 이용한 한국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소셜네트워크는 정보의 유통망이므로 홍보가 아닌 정보 제공에 1차적 목적을 둬야 소비자의 자연스러운 참여와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 지식이나 아이디어 기반의 소규모 산업 성장에 집중해야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합니다."

송 팀장은 이어 "수익구조를 다변화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며 "소셜커머스라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들어낸 전자상거래나 유저 간 경쟁이라는 재미 요소로 수익성을 높인 온라인게임 산업은 소셜네트워크를 잘 활용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G

글·김지영 기자

“소통하는 국정과 일촌 맺으실래요”

미국·영국·호주 등 선진국 도입 성공 사례

현재 미국과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정책 현안 해결과 미래 사회 발전을 위한 공공 부문의 새로운 전략적 툴로서 소셜미디어를 도입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소셜미디어는 시민과의 소통과 참여, 협업을 기반으로 하는 열린 국정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 나라의 성공 사례를 통해 소셜미디어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봤다.

동아DB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월 방한한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 캘리포니아 주지사(오른쪽)와 청와대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은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트위터와 함께 운영하는 온라인 혁신포럼 웹사이트.

소셜미디어의 주된 기능은 소통, 공유, 연계, 참여 등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이에 따른 4대 활용 전략으로 ▲시민과 온라인 일촌 맺기(소통) ▲다방향적인 실시간 정보 공유하기(공유) ▲새로운 공공서비스 채널 열기(연계) ▲21세기형 직접민주주의 실천하기(참여)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 박선주 선임연구원은 “시민과의 온라인 일촌 맺기는 정치리더와의 열린 대화를 통해 시민이 만족감을 얻을 수 있고 상호 간에 신뢰가 쌓여 정책 추진과 국정 운영의 강력한 버팀목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적인 공공정보 공유는 정책효과를 극대화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과 피드백 체계로 조기 대응 정책과 솔루션 개발 등에서 높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돕는다”고 덧붙였다.

정원모 책임연구원은 “소셜미디어가 생활 속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채널로서 시민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소셜미디어를 21세기형 직접민주주의의 장으로 활용하면 시민들이 참여를 통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영향력을 키우고, 온라인상에서 정치 전반에 걸쳐 다양하고 새로운 문화를 선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백악관, 온라인 일촌 맺기 전략으로 시민과 소통

우리보다 앞서 공공 부문에 소셜미디어를 도입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러한 4대 활용전략을 적용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시민과의 온라인 일촌 맺기 전략으로 소통에 성공한 대표적인 공공기관이다.

백악관은 ‘스테이 커넥티드(Stay Connected)’라는 이름으로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마이스페이스, 플릭커, 아이튠 등 8개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공식 홈페이지(www.whitehouse.gov)와 연계해 운영하고 있다. 스테이 커넥티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생생한 음성과 영상을 통한 정책정보와 주요 현안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참여에 대

트위터 등 8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연계해 운영되고 있는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왼쪽).
영국 왕실은 지난 4월 세계 왕실 최초로 공식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왕실 소식을 알리고 있다.

한 세심한 피드백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열린 정부'라는 새로운 국정운영 방식에 따라 시민과의 소통에 공을 들여왔다. 그는 대선 캠페인 때는 물론 당선 이후 국정운영까지 트위터로 자신의 정책을 호소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팔로어(약 4백15만명)를 확보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 외에도 32명의 주지사가 트위터를 활용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캘리포니아 주지사인 아널드 슈워제네거의 트위터(@schwarzenegger)가 유명하다. 2008년 1월 트위터를 시작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약 1백70만명의 팔로어에게 하루 평균 21개의 메시지를 전송했다.

그의 소소한 일상을 담은 트위터 메시지와 즉각적인 피드백은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 개선과 시민들과의 긴밀한 관계 구축에 큰 보탬이 됐다. 그는 트위터와 함께 온라인 혁신 포럼(myidea4ca.com)도 운영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정책 추진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미국은 넓은 영토에서 수시로 발생하는 재난재해 관리에도 소셜미디어를 지리정보기술, 위치기반기술, 최첨단 경보 시스템, 모바일 인프라 등과 접목해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국토안보부가 구축한 모바일 상용 경보 시스템(CMAS), 뉴저지 주정부가 만든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 위기대응 체계, 연방재난관리청이 운영하는 공공 부문 간 협업 체계가 좋은 예다.

샌프란시스코시도 지난해부터 각종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 서비스 채널을 만들어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콜센터 대신 소셜미디어 민원센터(SF 311)를 구축해 시민들을 상대로 다채로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국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소통과 참여의 물꼬를 텄다. 영국 왕실은 1997년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각종 메시지를 전달해왔다. 이어 지난 4월에는 세계 왕실 최초로 공식 트위터 계정을 구축해 로열 패밀리의 동정과 왕실 행사, 여왕 접견 등의 뉴스를 한 시간 간격으로 띄우고 있다.

'소셜미디어 총선'으로 새로운 정치문화를 선도한 것도 영국이다. 지난 5월 6일 있었던 영국의 총선은 정당의 주도적인 소셜미디어 활용과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선거로 꼽힌다. 당시 선거에서는 SNS를 이용해 지지 멘트 보내기, 소셜미디어 토론회 등의 이벤트가 시민들의 뜨거운 참여 열풍을 유도했다.

호주 정부는 소셜미디어를 주로 범죄 예방과 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과의 대화 채널로 쓰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 과학적인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정보공유 시스템과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전 지역을 대상으로 웹 2.0과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위기대응 체계도 구현한 것. 이를 통해 호주 정부는 정책 홍보와 민의 수렴 등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빅토리아주 멜버른 경찰국에서도 소셜미디어를 적극 활용해왔다. 이 경찰국은 지난해 2월 4백여 명의 인명 피해를 낸 역사상 최악의 산불 사태를 경험한 후 모바일 기반의 트위터를 활용해 지역주민과 24시간 연결 체계를 유지하며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박선주 연구원은 "공공 부문에서 소셜미디어를 도입하는 것은 이제 자연스러운 일이 됐다"면서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하려면 선진국의 도입 성공 사례를 비교 분석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G

글 · 김지영 기자

동아DB

GS그룹은 각 계열사의 특성을 극대화한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GS 임직원들이 지난 10월 소외계층의 낡은 주택을 보수해주는 '희망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업 발전의 원동력 '사회공헌활동'

집수리 사업·안전도우미 등 회사가 가진 역량 소외계층과 나눠

기업의 성과는 꼭 재무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사회공헌활동 같은 비재무적 활동이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자사뿐 아니라 수혜자 모두가 성장하는 활동인 것이다.

계열사 특성 극대화한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지난 8월 허창수 GS 회장은 보유 중인 GS건설 주식 4만9천20주(약 40억원)를 재단법인 남촌재단에 내놓았다. 허 회장이 2006년 남촌재단을 직접 세운 후 5년 연속 사재를 출연한 것. 이렇게 기부한 GS건설 주식이 23만2천 주를 넘었다. 금액으로는 2백12억원에 달한다.

GS그룹은 각 계열사의 특성을 극대화한 사회공헌활동을 벌이고 있다. GS건설은 소외계층의 낡은 주택을 보수해주고 있다.

123개 조직 구성, 양로원·보육원 등 방문해 생필품 지원

올해 4월에는 행정안전부와 '희망의 집수리 사업' 협약을 체결한 뒤 저소득 취약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홀몸노인가구 집수리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11월 전북 임실군 중촌마을에서 '그린홈 그린타운'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전기 안전 점검 및 노후 전기설비 개·보수작업을 하고 있다.

현장과 본사 직원을 총 1백23개 조직으로 구성하고 양로원과 보육원, 고아원 등을 방문해 생필품을 지원한다.

GS리테일은 'GS나누미'라는 봉사단을 조직해 각 지역에 퍼져 있는 점포를 통해 매월 고아원이나 양로원 청소, 노숙인 배식활동, 소년소녀가장 공부도우미 활동, 연탄 배달, 김장 담그기 활동 등을 벌인다.

GS25 편의점에서는 어린이 안전과 치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아동 안전지킴이집 캠페인'을 진행한다.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언제든 매장을 방문하면 경영주가 아이를 안심시키고 경찰에 신고해 사고를 예방한다.

GS샵은 매년 영업이익의 3퍼센트 이상을 사회공헌활동에 지출하고 있다. 상품 판매 수익금이 전액 기부되는 착한 상품 '한 뼘 티셔츠' 판매, 신생아 살리기 '모자 뜨기 캠페인'과 같은 참여형 기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발전회사인 GS EPS는 본사가 있는 충남 당진군에서 장학사업, 문화예술 지원, 자원봉사, 공공시설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GS 여은주 상무는 "회사가 가진 역량을 소외계층, 지역주민과 나누고 있다"며 "사회공헌활동 투자를 꾸준히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글 · 이성훈(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전기·재해 취약지역의 '안전도우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가정, 빌딩, 아파트, 공장 등 전기를 쓰는 건물의 전기설비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고장 신고가 들어오면 응급처치를 하는 곳이다.

서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기업답게 전기안전공사의 사회공헌은 생활 속에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기설비 개선운동 중심으로 문화·환경 등 봉사활동 벌여

특히 전기설비 개선운동을 중심으로 문화, 환경, 재난구호 등 폭넓은 영역에서 사회공헌활동을 벌인다. 전기설비 점검 기술을 봉사활동에 접목한 '그린홈 그린타운' 운동의 경우, 농어촌 마을이나 전기재해 취약지역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전기설비 안전 점검, 노후 설비 개선활동을 벌여 호응이 높다. 지난해에만 그린홈 2백5가구, 그린타운 73개 마을을 대상으로 연인원 4천여 명을 투입해 봉사활동을 벌였다.

지난 9월 8일에는 저소득계층이 화재 없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식을 소방방재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6개 유관 기관과 체결했다.

임인배 사장은 "이제는 모든 공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요구에도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7월 16일 전기안전공사의 핵심 부서인 경영기획처, 성장동력본부, 기술지원처, 인력관리실 등의 직원 30여 명은 서울 답십리에 있는 밥퍼나눔운동본부로 출근했다. 무의탁 노인과 노숙인들을 위한 점심 준비를 위해서였다.

지난 7월 7일 서울 강동구 전기안전공사 본사 대강당에서는 본사 및 전국 63개 사업장의 임직원들이 참여해 '사랑의 헌혈' 행사도 열었다. '사랑의 헌혈'은 매년 두 번씩 시행하고 있다. 헌혈을 한 직원에게는 '혁신 마일리지'를 부과해 개인 성과에 반영함으로써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임 사장은 "앞으로 사회문제나 환경과 같은 '비재무적 성과'가 경영의 화두"라며 "연말에 하는 일회성 기부나 생색 내기용 행사 대신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여러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사랑과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글 · 김승범(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헌혈뱅크·기부상품권 도입

한국도로공사는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이다. 거창한 것보다는 자신의 실생활 속에서 기부와 나눔문화를 안착시키고 사회에 공헌하는 실천을 강조한다.

도로공사는 2008년 국내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헌혈뱅크'를 세웠다. 고질적인 혈액수급 부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헌혈뱅크는 전 직원의 참여로 기증받은 헌혈증을 은행식으로 적립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제도다.

전 직원에게서 기증받은 헌혈증 개인·단체에 무상 기증

헌혈뱅크를 도입한 후 올해 9월 기준 4천9백30명이 1백97만2천 밀리리터의 혈액을 공급했다. 희귀·난치병 환자를 위해 매년 1천 장의 헌혈증을 기부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사내 헌혈왕' 제도를 도입해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으며 꾸준히 헌혈활동을 펼친 직원 2명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는 헌혈증 기증 등 자발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직원들에게 기부상품권을 지급한다.

동아DB

한화는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2007년 사회봉사단을 창단했다. 지난 5월 한화 사회봉사단이 주최한 입양 아이들의 첫 생일잔치.

은 대한적십자사 명예의 전당에 등록되기도 했다.

도로공사는 국내 최초로 기부상품권 제도를 도입해 기부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다. 헌혈증 기증자나 공사 경영에 기여한 직원들에게 기부상품권을 지급하고 지급한 상품권의 총 금액만큼 희귀·난치병 어린이 치료비용을 조성해 매년 연말 1억원을 기부한다.

글 · 박성호(조선경제i 기자)

임직원 "틈만 나면 자원봉사"

한화그룹은 '사랑의 친구, 미래의 친구'라는 슬로건 아래 사회복지, 문화예술, 자원봉사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2년에는 창립 50주년을 맞아 사회공헌 전담 조직을 갖췄고 2007년 창립 55주년에는 더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사회봉사단을 창단했다.

한화사회봉사단은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더불어 임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주력한다.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기금에 회사가 추가로 기부하는 '매칭 그랜트' 제도와 임직원들이 언제라도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유급 자원봉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참여형 사회공헌활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전국 60여 개 사업장이 2003년부터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임직원들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86퍼센트, 사회공헌기금 참여율이 90퍼센트에 이른다.

언제든지 소외이웃 찾아 봉사하는 '유급 자원봉사' 제도 운영

계열사별 역량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금융 부문의 어린이·청소년 경제교육, 한화L&C와 한화건설의 빈곤층 주거환경 개선활동, 손해보험의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과 어르신 임종 준비 프로그램 '하늘소풍 준비하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문화재지킴이 사업 등이 있다.

그룹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사회복지, 문화예술, 자원봉사, 도농 교류 같은 활동도 전개한다. 지난해부터 3년간 진행하는 그룹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Happy Tomorrow'의 경우, 한국메세나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문화적으로 소외될 수 있는 저소득층 자녀에게 국악, 미술, 연극, 영화, 음악 등 예술 분야의 교육·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장애 어린이의 사회적응을 돕는 게 목적이다.

한화사회봉사단의 김연배 부회장은 "한화뿐 아니라 지원기관 및 수혜자들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차별화되고 전문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왔다"며 "이런 노력이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작은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김승범(조선일보 산업부 기자)

대한민국 미래 이끌 동력 '과학 원천기술'

4개 사업단, 23조4537억원 직접경제효과 창출

과학을 기반으로 한 원천기술 개발은 국가 미래 산업의 원동력이다. 1999년에 시작해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는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기틀을 세우며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40년간 한국을 바꿔놓은 최고의 과학기술 업적', '올해 최고 과학기술 뉴스'….

2006년 9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40나노 32기가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CTF(Charge Trap Flash) 기술에 대한 당시 언론 기사들의 제목이다. CTF 기술은 미래 반도체 개발의 당면 과제인 '고용량화', '고성능화', '초미세화'를 동시에 해결하는 차세대 반도체 기술이다. 이 기술을 이용해 만든 40나노 32기가 낸드플래시는 머리카락 두께의 3천분의 1에 해당하는 초미세 기술과 세계 인구 65억명의 5배에 해당하는 3백28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엄지손톱만한 칩 안에 집적된 것을 의미한다.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 역사를 다시 쓴 40나노 32기가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CTF 기술을 개발하게 된 배경에는 정부가 추진하는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의 하나인 테라급나노소자기

일러스트 · 남동윤

술개발사업단의 노력이 있다. 사업단은 낸드플래시 메모리의 고집적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구조를 개발했고 이러한 구조를 적용해 CTF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다.

이후 이 기술과 관련된 58건의 특허 등을 약 1백3억원의 기술료를 징수하고 삼성전자에 이관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올해 이후 낸드플래시 메모리가 세계시장의 20퍼센트를 점유하면 앞으로 10년간 약 16조9천억원을, 2014년엔 세계시장의 60퍼센트를 차지하면서 약 18조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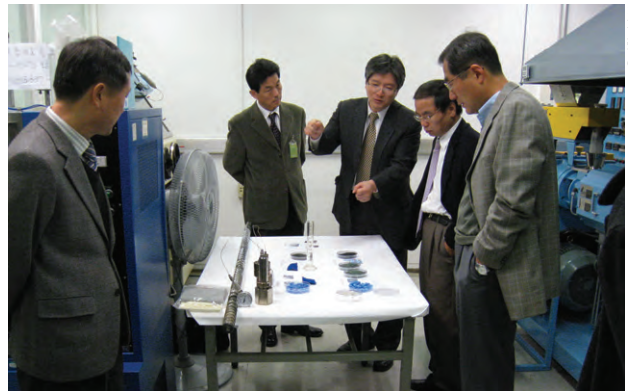
이처럼 과학 원천기술 확보는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다. 기술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과학기술 개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1년 당시 과학기술부 선도기술 개발사업, 일명 G7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10년간 3조8천억원을 투자한 대형 사업으로 21세기 과학 선진 7개국 진입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렇듯 G7 프로젝트를 통해 확보한 연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이 탄생했다.

이 사업의 특징은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로 나눠 전략 기술을 선택적, 집중적으로 개발했다는 점이다. 1999년부터 10년 동안 전략 기술을 개발해 선진권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혁신의 성과를 사회 전 분야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략 기술에 맞춰 세부적으로 나뉜 16개 사업단을 선정해 사업별로 연간 80억~1백억원을 투입했다.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맞춤치료 시대 초석 마련

16개 사업단 중 4개 사업단의 사업이 올해 종료됐다.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단,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단, 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의 사업으로, 10년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엄청난 경제효과를 거둬들였다. 4개 사업단의 올해 누적 연구개발 투자는 4천9백43억원에 그쳤지만 이전기술의 경제효과는 향후 10년간 23조4천5백37억원, 이전예상기술의 경제효과는 향후 10년간 총 3조8천4백75억원으로 55배의 직접경제효과를 창출해냈다.

21세기 프론티어 사업 중 가장 먼저 시작된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은 인간 유전체의 기능 분석 및 활용을 통해 암의 진단과 치료 원천기술을 개발했다. 국내에서 암은 제1의 사망 원인으로 꼽히고 사망자 수가 매년 2만명을 넘는다.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은 3단계 과정의 연구개발을 통해 최근 간암 진단용 바이오마커 기술 이전을 진행했고, 인간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종료된다. 산업폐기물을 이용해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는 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의 연구 설명 모습.

유전자 3만3천 종을 발굴해 인간유전자은행도 개설했다. 이로써 환자의 유전 체형에 따라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맞춤치료 시대의 초석을 마련했다.

종료된 4개 사업단 중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낸 곳은 테라급나노소자기술개발사업단이다. 정보기기가 소형화, 휴대화되면서 나노기술의 경쟁력은 더 중요해졌다. 사업단은 기존 소자의 제조 과정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고 테라급 나노소자 기초·원천기술 개발을 목표로 연구한 결과 '세계 최초'의 기술들을 대거 개발했다. 40나노 32기가 낸드플래시 메모리 CTF, 중성빔 원자층 무손상 식각기술 등이 그것이다. 현재 총 15건의 기술 이전이 성사됐으며 앞으로 우리나라가 테라급 나노소자 분야의 기술 패권을 장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자생식물이용기술개발사업단은 자생식물 자원에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천연물 의약 및 기능성 식품을 개발했다. 4천여 종에 달하는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특성을 살려 재배품종이나 천연물 신약, 식품의약, 신기능성 식품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현재 7개 제품이 시판돼 2천11억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산업폐기물이나 생활폐기물을 이용한 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도 경제성 있는 원료 물질과 에너지의 자원화, 재활용 기술을 개발했다. 환경 문제 해결, 자원 순환적 이용 등 성공적인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국내외 특허 6백67건을 획득해 국내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원천기술을 확립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윤헌주 기초연구정책관은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는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은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이끄는 국가 주요 사업"이라며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이처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의 연구개발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G

글 · 김민지 기자

두 배로 늘어나는 '마법통장' 꿈·희망도 '쑥쑥'

디딤씨앗통장 홍보대사 오상진 아나운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린이가 용돈을 절약하거나 후원을 받아 매월 저금을 하면 정부에서 3만원 한도로 같은 금액을 적립해주는 '디딤씨앗통장.' 어린이들에게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는 디딤씨앗통장 후원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격려의 메시지가 된다.

안녕하세요. MBC 아나운서 오상진(30)입니다. 2007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어 올해 5월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시행 중인 '디딤씨앗통장' 사업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18세 미만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홍보대사로 위촉된 것은 '환상의 짝궁-사랑의 교실', '찾아라 맛있는 TV' 등에 출연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아저씨로 비쳐서라고 합니다.

디딤씨앗통장은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층 어린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2007년 4월부터 추진 중인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CDA · Child Development Account)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브랜드입니다. CDA라면 양도성 예금증서를 뜻하는 CD와 혼동하거나 현금인출기(CD)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디딤씨앗통장이라면 바로 이해가 되시죠.

가정위탁·소년소녀가장 만 17세 이하만 통장 개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나눔을 베푸는 데 앞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 혹시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작은 금액이 무슨 도움이 될까'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딤씨앗통장은 적은 금액으로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도움뿐 아니라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누구나 이 통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소년소녀가장,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에 거주하는 만 17세 이하 어린이만 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올해 10월 기준 4만1천3백99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단계적으로 차상위 계층의 자녀들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이 어린이들이 자신의 용돈을 절약하거나 후원을 받아 개설한 디딤씨앗통장에 매월 예금을 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최고 3만원(상한선) 이내에서 같은 금액을 추가로 입금하게 됩니다. 만약 어린이가 3만원을 예금했다면 여기에 정부 지원금 3만원을 더한 6만원이 통장에 쌓입니다. 순식간에 예금이 두 배로 늘어나는 '마법 통장'인 셈이죠.

투자, 특히 아이들을 위한 투자에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예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 매월 6만원씩 18년간 적립한다고 가정하면 총 2천2백35만원이 됩니다. 어린이 예금과 정부 지원금은 각각 다른 형태로 운용됩니다.

어린이 예금은 적립이율이 5.7퍼센트인 변동금리 저축으로, 정부 지원금은 국공채 투자신탁으로 운용해 수익률 6퍼센트로 계산한 것이라고 합니다. 원금 1천2백96만원에 이자가 9백39만원입니다.

월 3만원의 작은 돈이 시간 개념이 더해지니 단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풍족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립을 위한 기반이 될 수는 있을 듯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커지는 예금액을 헤아려보며 기뻐할 아이들의 모습을 떠올리면 저도 흐뭇해집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나눔을 베푸는 데 앞서 '일회성으로 끝나 혹시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작은 금액이 무슨 도움이 될까' 망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디딤씨앗통장은 적은 금액으로도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아이들에게 경제적인 도움뿐 아니라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대학 학자금·창업 등 사유 발생할 때 해지 가능

디딤씨앗통장에 적립된 금액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 학자금, 국가자격증 취득 및 취업훈련 비용, 창업, 주거 마련, 의료비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어린이가 자신의 자산을 잘 늘리고 운용해갈 수 있도록 사전 경제교육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2일에는 디딤씨앗통장 후원의 날 행사가 열려 우수 후원 사례와 모범적으로 저축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사연이 소개됐습니다.

충북 청주시청은 관내 저소득층 보호아동 5백61명 모두에게 디딤씨앗통장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후원자를 발굴해 이들에게 2009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2년 동안 매월 2만원씩 후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장업체인 아모텍도 지난 2월부터 매월 1백88명의 대상 어린이에게 3만원씩 후원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업체 특별채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권정순 재단도 지난 3월부터 매월 1백9명의 대상 어린이에게 3만원씩 후원하고 있으며 개인 후원자인 이금희(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씨는 2008년 10월부터 매월 20만원씩 디딤씨앗통장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어린이 사례도 많습니다. 정모 군은 다섯 살 때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와 이별해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꿈인 상담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며 매달 용돈을 아껴서 1만원씩 디딤씨앗통장에 저축을 합니다.

이모 군도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대학 진학에 필요한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디딤씨앗통장에 매월 2만원씩 꾸준히 저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경영인이라는 큰 뜻을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대견하지 않습니까.

디딤씨앗통장은 단순히 저축액을 늘리는 게 아니라 자립 의지와 자신감을 키워주며 희망을 실현해가는 '희망 주머니'입니다. 그러므로 디딤씨앗통장 후원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아이들에게 미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와 청취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로 힘을 얻는 것처럼 뜻있는 후원은 매달 어린이들에게 혼자가 아니라 함께 그리고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희망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G

글 · 강선임 객원기자

디딤씨앗통장 www.adongcda.or.kr, 한국아동복지협회 ☎ 02-790-0786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 02-2023-8786

디딤씨앗통장 가입 및 저축 현황

기준	대상 어린이(명)	가입자 수*	가입률(%)	1인당 월평균 저축액	적립액 누계(억원)		
					어린이 적립액	정부 매칭 금액	합계
2007.12	33,000	31,828	96.4	27,887	6.2	5.8	12
2008.12	41,500	34,263	82.6	28,238	161	140	301
2009.12	43,143	36,469	84.5	28,184	258	223	481
2010.10	41,399	39,011	94.2	29,832	358	294	652

*만기(만 17세) 후 통장 보유 어린이 포함

동아DB

이승엽에 대한 오릭스 구단의 기대는 무척 크다. 마치 한국 구단 홈페이지를 연상케 하는 이승엽 환영 메시지.

이승엽에게 오릭스 이대론 안 돼 오! 찬스

“나를 인정해줘 고맙다… 멋지게 부활해 명예 회복”

‘이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지난 3년간 나락으로 떨어졌던 ‘국민 타자’ 이승엽에게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찾아왔다. 요미우리에서 퇴단한 그가 리그를 옮겨 오릭스에 새 둥지를 튼 것. 연봉은 요미우리 시절의 4분의 1로 추락했다. 하지만 이승엽에 대한 구단의 기대와 애정은 연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벼랑 끝에서 구원의 손길을 잡은 이승엽, 과연 2006년의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을까.

요미우리는 이승엽에게 일본 프로야구 최고액 선수라는 영광을 안겨줬지만 지난 3년간은 쓰라린 좌절의 연속이었다. 2008년 45경기에서 타율 0.248에 8홈런 27타점, 이듬해엔 77경기에서 타율 0.229에 16홈런에 그쳤다.

올 시즌 성적은 더욱 비참했다. 대타로 간간이 모습을 비추며 겨우 56경기에 출전했고 타율은 0.163으로 떨어졌다. 홈런은 5개에 그쳤다. 이승엽은 올 시즌 정확히 1백8타석에 들어섰다. 번뇌와 고민의 상징이 그의 타석수와 공교롭게 맞아떨어졌다.

그래서 오릭스에서 새로운 야구인생을 시작하는 이승엽의 각오는 남다르다. “나를 인정해준 것이 고맙다”는 입단 소감에 그의 각오가 함축적으로 녹아 있다. 오릭스가 인정해준 이상으로 멋지게 부활해 명예를 회복하겠다는 의지가 역력하다. 명예회복의 길은 당연히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홈런포 재가동에 달렸다.

이승엽의 부활 가능성을 점치려면 우선 그가 부진했던 원인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승엽이 요미우리에서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자신만의 스타일을 버렸기 때문이다. 메이저리그가 장점을 살리는 데 주력한다면 일본 프로야구는 단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99퍼센트를 갖춘 타자에게도 1퍼센트를 더 갖추도록 종용한다.

유독 한국인 선수에게는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일본 야구가 한국 야구보다 한 수 위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일본 무대에 진출한 대부분의 한국 선수들에게 일본 코칭스태프는 한국에서 익힌 습관을 하나하나 뜯어고쳐 일본화하려는 시도를 했고,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다.

이승엽도 마찬가지다. 완벽한 타격 메커니즘에 대한 집착으로 자신의 타격 밸런스가 흐트러지고, 성적이 떨어지면서 타석에 들어설 기회는 점점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승엽은 그런 일본 프로야구의 풍토에 희생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승엽에 대한 평가는 후하다. 그는 기술이나 체력 면에서 일본 프로야구에서 톱클래스의 선수로 꼽힌다. 기회만 꾸준히 주어진다면 충분히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만 요미우리 구단의 특성상 이승엽에게 그런 여유를 주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평이다. 출전 기회 자체가 들쭉날쭉하다 보니 타격 감각을 되찾을 수 있는 틈이 없었고 간혹 대타로 들어서더라도 위축된 상황에서 자기 스윙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충분한 커리어·기량… 자신감 회복이 부활의 열쇠

충분한 기회를 보장받고 자신의 장점을 살려내려는 노력이 병행된다면 이승엽의 부활 가능성은 높다.

타격에 관한 한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박영길 한국실업야구연맹 회장은 자신감 회복이 부활의 열쇠라고 조언했다. 박 회장은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아야 한다. 이승엽은 충분한 커리어가 있고 기량도 있다. 배짱 있게 자신의 스윙을 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 투수들도 겁을 내고 보는 관중이나 구단에서도 다음 타석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된다. 엉덩이를 빼고 툭 갖다 대는 식의 타격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동아DB

새로운 팀을 맞은 이승엽에겐 자신감 회복이 급선무다. 12월 10일 서울 중구 밀레니엄힐튼호텔에서 오릭스 입단식을 가진 이승엽.

"포크볼에 약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승엽에게 던지는 포크볼은 대부분 원바운드성 볼이다. 안 치면 그만이다. 자기 코스에 공이 왔을 때 자신 있게 스윙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센트럴리그에서 퍼시픽리그로 옮기는 것이 또 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지만 적응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이승엽은 이미 일본 진출 직후인 2004년과 2005년 지바 롯데에서 뛰며 퍼시픽리그를 경험한 바 있다.

박 회장은 퍼시픽리그로 복귀한 이승엽이 더욱 공격적인 자세로 타격에 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퍼시픽리그는 교과서적인 센트럴리그에 비해 훨씬 거친 스타일의 야구를 구사한다. 강한 타자나 투수는 센트럴리그보다 퍼시픽리그에 더 많다. 몸 쪽 공 구사 비율도 높다. 공을 몸 쪽으로 바짝 붙인다고 해서 절대 도망가면 안 된다. 과거 장훈은 빈볼에 맞으면 방망이를 들고 상대 덕아웃으로 쳐들어간 적도 있었다. 그래서 투수들이 오히려 겁을 먹었다. 겁을 먹어야 실투가 나온다. 투수가 던질 곳이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오릭스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은 이승엽에게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오릭스의 이승엽 영입은 구단 차원에서 먼저 추진한 것이 아니라 모기업의 강력한 요청에 의한 것이었다.

오릭스 측은 "마케팅적인 요소를 고려해 한국의 오릭스 관련 회사에서 (과거 오릭스에서 활약했던) 구대성 이상의 거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승엽이 그간 부진했지만 여전히 초일류 '네임 밸류'를 자랑하고 있어 한국 팬 유치는 물론 방송중계권 판매 등 가외 수입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오릭스 측은 "한국의 방송사에서는 한국 프로야구의 중계를 줄이더라도 이승엽 출전 경기를 중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이에 오릭스 구단은 이승엽의 입단식을 한국에서도 진행하는 등 이승엽을 깍듯이 예우하고 있다. 실제 구단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이승엽의 활약상이 담긴 동영상과 함께 '환영! 이승엽 선수! 대한민국의 국민타자 이승엽 선수를 환영합니다'라는 한글 문구를 올려놓기도 했을 정도다.

출전 기회 보장된다면 홈런 20~30개 칠 수 있을 듯

무엇보다 이승엽의 정착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한 출전 기회가 보장된다면 여전히 20~30개의 홈런은 충분히 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미 외국인 강타자 카브레라를 포기한 오릭스는 이승엽에게 배번 3번을 부여하고 팀의 중심타선을 맡긴다는 계획이다.

이승엽은 2005년 지바 롯데에서 30홈런을 쳤고 2006년엔 요미우리에서 41홈런을 기록했다. 올 시즌 퍼시픽리그 홈런왕은 오릭스 소속 오카다 다카히로로 33개의 홈런을 기록했다. 꾸준한 출전 기회를 보장받고 시즌 홈런 30개 정도를 기록한다면 홈런왕 타이틀을 노려보면서 극적 부활을 꿈꿀 수 있게 된다. G

글 · 박현진(스포츠서울 체육2부 기자)

울산 모비스

“농구선수로 성공하면 친엄마가 알아보겠죠”

미국 입양됐다 한국 프로농구 선수 된 김영규

케빈 밴훅(Kevin Van Hook), 한국 프로농구 선수 김영규(27·울산 모비스)의 영어 이름이다. 입양아인 그는 모국인 한국에서 농구선수의 꿈을 이어가고 있다.

돌을 갓 넘기고 미국 시애틀에 거주하는 양부모에게 입양된 그는 지난해 모국 땅을 밟았다. 무려 26년 만에 찾은 한국 땅.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고, 친인척도 없지만 한국에서 농구선수 생활을 해보겠다는 일념으로 낯선 곳에 정착했다. 그러던 그는 운 좋게도 울산 모비스 프로농구단의 지명을 받아 꿈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찾고 싶지만 아는 게 없다. 단지 부산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가 대학을 다녔고 피아노를 잘 쳤다는 사실이 전부다. 게다가 그는 한국말도 전혀 하지 못하는 탓에 스스로 뭔가를 알아보기도 힘든 상황이다.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의 김영규.
돌을 갓 넘기고 미국으로 입양된 그는 친엄마를
찾기 위해 국내 프로농구계에 뛰어들었다.

그가 ‘김영규’라는 이름을 되찾게 된 것도 입양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그의 이름을 서류에 명시해놓은 덕분이다. 그나마 그 이름도 친부모가 지어준 것인지 입양기관에서 임시로 지어준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단다. 워낙 정보가 없어 친부모를 찾는 일은 잠시 뒤로 미뤘다.

요즘은 ‘모국어 배우기’에 한창이다. 되도록이면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루빨리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그가 원하는 만큼 한국에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즘에는 한국어 교재를 손에 달고 산다. 또한 구단에서는 음식도 한국식으로 섭취하도록 했다. 아직 김치에까지는 도전하지 못했지만 자극적이지 않은 한국음식은 무리 없이 먹을 수 있다.

“모국어 빨리 배워 한국에서 원하는 만큼 생활하고파”

낯선 곳에서 살아야 하는 그에게 가장 큰 적은 외로움이다. 한국에서 아는 지인이라곤 미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의 친구들 중 지금 한국에서 영어강사를 하는 몇 명뿐이다. 그나마 활달한 성격 덕분에 외로움을 덜 탄다는 게 구단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올 시즌엔 1군으로 승격되면서 간혹 출전 기회도 얻고 있다. 원래 2군으로 선발된 그는 1군으로 승격되면서 하루 10만 원씩의 추가 연봉을 받는다. 덕분에 수입도 꽤 늘었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팀워크를 중시하는 한국 농구에 더 적응해야 한다.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한국농구연맹의 규정상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도 김영규는 꿈에 그리던 모국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농구를 계속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고 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도 품고 있다.

“제가 성공하면 친엄마가 꼭 알아보시겠죠.”

하루빨리 모자가 상봉하길 기원해본다. G

글 · 최용석(스포츠동아 기자)

‘사랑의 화수분’ 희망쌀 퍼가세요

서울메트로 당산역 사랑의 쌀독 연중무휴로 운영

“저희 역에는 화수분처럼 쌀을 아무리 퍼내도 줄지 않는 ‘사랑의 쌀독’이 있습니다. 이 쌀독에 채워지는 건 그냥 쌀이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랑의 쌀입니다.”

서울메트로 천경례 당산역장은 역내 사무실 한 귀퉁이에 놓인 사랑의 쌀독을 보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당산역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랑의 쌀독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최소한의 먹을거리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11일 농업인의 날에 설치됐다.

“농업인의 날은 11이라는 숫자가 두 개나 들어 있어서 철도 레일을 연상시키잖아요. 또 쌀 소비량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힘들게 농사지은 농업인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쌀을 많이 이용하자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은 ‘사랑의 쌀독’을 설치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기증받은 쌀을 지급하고 있다.

사랑의 쌀독 이용 대상은 각종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할 만큼 형편이 어렵지만 자격이 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에도 끼지 못하는, 사정이 딱한 주민들이다. 지난 1년 동안 사랑의 쌀독을 이용한 주민은 2천여 명. 이 중에는 본래 취지와 달리 형편이 어렵지 않은데도 쌀을 퍼간 ‘양심불량자’도 있다.

“처음에는 쌀을 자발적으로 퍼가도록 뒀더니 막 가져가기에 쌀독을 역무실 안에 두고 필요한 분들이 찾아와서 상담을 한 뒤 가져가는 식으로 방법을 바꿨지요. 처음 오실 때만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지 사정을 들어보고 다음에는 그런 절차 없이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산역 사랑의 쌀독이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이를 벤치마킹해 시행하고 있는 지하철역이 곳곳에 생겨났다. 하지만 3백65일 사랑의 쌀독을 운영하는 곳은 당산역뿐이다.

쌀 필요한 이들에게 하루 2킬로그램씩 제공

천 역장은 “지난 1년 동안 당산역에 기증된 쌀은 20킬로그램 기준 2백여 포대에 이른다”면서 “모두 힘든 가운데서도 십시일반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을 기부해주고 있다. 인근 경찰지구대나 교회에서도 기부하고, 지하철 이용자들도 비닐봉지에 쌀을 담아와 쌀독을 채워준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기부자들의 따뜻한 마음이 온전히 전달돼 쌀을 가져가신 이웃들이 꿈과 희망을 되찾고 더욱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산역은 12월 1일 시민옴부즈맨공동체와 협약을 맺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사랑의 쌀독을 널리 알리는 데도 힘쓰고 있다. 쌀 기증자에게는 기부확인서도 발급한다. 쌀이 꼭 필요한 이웃은 당산역에서 하루 2킬로그램의 쌀을 가져갈 수 있다. 쌀독 개방 시간은 지하철 운영 시간과 같다. G

글 · 김지영 기자

서울메트로 당산역 ☎ 02-6110-2370
시민옴부즈맨공동체 ☎ 031-967-1114

"IT 코리아 지키려면 IT 생태계 재구성해야"

박헌용 KT파워텔 전무 〈스마트하지 않은 스마트 전쟁〉 펴내

"이대로 정보기술(IT) 생태계가 무너진다면 'IT 코리아'란 아성도 사라질지 모릅니다."

20여 년간 IT 업계에 몸담아온 박헌용(50) KT파워텔 전무. 최근 스마트폰을 필두로 바뀐 IT 환경에 대한 고민이 많다. 그는 그간 KT에서 이동통신 분야 관련 2세대 PCS, 3세대 이동통신 국제표준(IMT2000) 등과 같은 신규사업과 초고속 인터넷 사업 진출, IPTV 법제화 등 굵직한 프로젝트에 참여해왔다. 대한민국 IT 발전과 줄곧 함께했던 그의 전공은 원래 경영학. 1983년 군 복무 시절 온갖 첨단 IT기기를 경험하게 된 인연이 지금의 그를 만들었다.

그가 말하는 IT의 정의는 '편리함'이다. 그의 정의대로 많은 사람들이 IT로 편리함을 누리지만 정작 IT가 무엇인지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한다. 그런 점이 못내 아쉬웠던 찰나 지난해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스마트폰 열풍이 불어닥쳤다. 자의 반 타의 반 'IT 전문가'로 알려진 그에게 갑작스레 질문들이 쏟아졌다. "왜 우리나라는 아이폰 도입이 늦었냐. 스마트폰의 장점이 뭐냐. 앞으로 IT 코리아의 전망은 어떠하냐."

조영철 기자

20여 년간 IT 업계에서 일한 박헌용 전무는 "우리나라가 IT 강국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선 기업, 정부 등 모두가 협력해 IT 생태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일이 친절한 답변을 하던 그는 펜을 들었다. IT 업계 최전방에서 겪었던 경험과 통찰을 한 번쯤 정리하고 싶었는데 그때가 됐단 생각에서였다. 그런 계기들을 통해 〈스마트하지 않은 스마트 전쟁〉이란 책이 나왔다. 부제로 붙은 '대한민국 IT 생태보고서'처럼 그는 그동안 보았던 IT 코리아의 현황과 문제점, 스마트폰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박 전무가 지금 주목하는 IT 이슈는 단연 스마트폰의 대중화다. 국내에는 여러 절차상 이유로 미국보다 2년 늦게 출시됐지만, 2007년 아이폰이 처음 출시됐을 때의 쇼크는 아직까지 유효하다. 그리고 올해 아이폰4와 필적할 만한 삼성의 갤럭시가 출시됨으로써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본격화했다고 본다.

"스마트폰, 단말기 경쟁 아닌 콘텐츠가 밑바탕"

하지만 박 전무는 "스마트폰으로 시작된 모바일 인터넷 시대에서 단말기만으로 경쟁할 수 없다"며 "그 뒤에 숨어 있는 콘텐츠나 인터넷 서비스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나라가 유선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IT 강국이란 칭호를 얻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의 1위 자리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 전무는 "지금이야말로 기업, 정부 모두가 나서서 IT 생태계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동안 각자 앉은 자리에서 IT와 관련된 제조, 통신, 연구를 해왔던 것에서 벗어나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는 '상생의 IT 생태계'를 구축하자는 말이다.

"스마트폰만 봐도 단말기, 콘텐츠, 인터넷 서비스 모두 균형감 있게 성장해야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의 기술로만 커나갈 수 없단 얘기죠. 그리고 1등이 된 이후엔 그 방향성을 잘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IT 코리아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G

글 · 김민지 기자

〈스마트하지 않은 스마트전쟁〉 박헌용 지음 / 동아E&D 펴냄 · 1만3천원

조영철 기자

화면 크기가 10인치급(왼쪽)인 아이패드와 7인치급인 갤럭시탭은 휴대성, 앱 활용, 용도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구입해야 한다.

7인치? 10인치?

'태블릿PC 大戰'

"7인치냐 10인치냐, 그것이 문제로다."

연말 보너스를 두둑이 받은 직장인이 한 번쯤 고민해봄직한 '사이즈'의 고민이다.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SBS TV 드라마 <대물>이 그 대물이 아니듯, 여기서 사이즈란 요즘 트렌드인 태블릿PC의 화면 크기를 말한다.

올해 초반까지 정보기술(IT) 분야에서 '스마트폰 대전'이 벌어졌다면 그 뒤를 이은 '태블릿PC 대전'은 해를 넘길 전망이다. 애플리케이션 세상을 창시한 애플 '아이폰'이 스마트폰 대전의 불씨를 당겼다면 지난 4월 등장한 애플의 '아이패드'는 놀라운 활용성으로 태블릿PC 대전에 불을 지폈다. 아이패드의 독주를 견제하고 나선 경쟁자가 있으니, 11월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이다.

7인치급 휴대성·10인치급 PC 대신해 업무용 사용

하지만 태블릿PC가 세상에 소개된 것은 훨씬 이전의 일이다. 2000년 IT전시회 '컴덱스' 개막 연설에서 빌 게이츠 당시 마이크로소프트(MS) 회장은 펜으로 입력할 수 있는 A4용지 크기의 휴대용 PC를 선보이며 태블릿PC 시대의 도래를 예고한 바 있다.

애플 최고경영자(CEO) 스티브 잡스는 올해 6월 한 행사에서 PC를 트럭에 비유했다. "우리가 농업국가일 때 모든 차들은 트럭이었지만, 도시가 발전하면서 승용차들이 등장했다. PC 역시 트럭처럼 되고, 태블릿PC는 승용차가 될 것이다."

애플과 삼성전자라는 'IT 무림'의 양대 고수를 중심으로 신제품 출시가 줄을 잇는 태블릿PC의 정체는 정확히 말해 '5~10인치 화면에 터치스크린을 입력장치로 쓰는 휴대용PC'다.

태블릿PC 크기를 놓고 CEO들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애플 아이패드는 화면 크기가 10인치급(9인치 이상)이며, 다른 회사들이 만든 제품은 대부분 7인치급(7~9인치)이다. 갤럭시탭 역시 7인치급이다. 잡스는 2010년 10월 애플의 실적 발표 후 "7인치 제품은 소비자가 받아보기 전에 이미 죽어버린(dead on arrival) 채소와 같다"고 비유했다.

IT 전문 매체인 <와이어드> 등 외신들은 잡스의 이러한 발언이 삼성전자, 리서치인모션(RIM)의 7인치 태블릿PC 제품을 조롱한 것이라고 했다. 스마트폰 '블랙베리'로 유명한 RIM의 CEO 짐 발실리는 "앞으로 7인치 태블릿PC 시장이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태블릿PC는 화면 크기에 따라 용도와 시장이 확연히 구분된다. 7인치급은 휴대성이 뛰어나 '이동형 미디어 기기'로 적합하지만 입력장치(키보드)가 불편하다. 반면 10인치급은 다소 무겁지만 PC를 대신해 업무용으로도 사용할 만하다.

IT 분야의 리서치·자문 회사인 가트너의 수석 애널리스트 크리스천 하이다슨은 이러한 차별화로 지금 10인치가 주류(약 90퍼센트)를 이루는 태블릿PC 시장에서 7인치의 시장 규모는 2014년 36퍼센트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승용차'가 7인치일지 10인치일지는 용도부터 따지길 바란다. 아쉽게도 가격은 2013년쯤 지금의 절반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하니 살 것이냐, 말 것이냐는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에 달렸다. G 글 · 설성인(조선경제i 산업부 기자)

김정일의 요리사가 바라본 **북한의 후계자**

최근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 북한 관련 사건들이 국가 안보나 국제사회 정세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에는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김정일(68) 국방위원장에 이어 3대 세습을 이어갈 후계자 김정은(26) 부위원장이 있다는 사실이다. 그동안 김정일의 후계자에 대한 추측은 많았지만 3남인 김정은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견은 드물었다.

하지만 지난 13년간 평양에서 김정일의 요리사로 지냈던 일본인 후지모토 겐지(63)는 달랐다. 그는 일관되게 김정일의 후계자로 김정은을 지목했다. 후지모토는 원래 일본의 평범한 스시 요리사였다. 1982년 우연한 기회로 북한에 들어가 평양 일식당에서 일했던 그는 1987년 재방북해 2001년까지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로 일했다. 그러나 1988년에 일본 경시청과 통화한 내용이 북한에 포착돼 1년 6개월 가택연금을 당했고 이후 출장을 핑계로 북한을 탈출했다.

후지모토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북한 후계자로 등장한 김정은의 성장 과정과 성격에 대해 쓴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를 펴냈다.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김정철·정은 형제의 놀이 상대가 된 그는 1990년 1월 처음 김정은을 만났던 기억을 떠올렸다. 김정은은 당시 일곱 살에 불과했다. 하지만 마흔 살인 그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마치 '이 녀석이 증오스러운 일본제국의 족속인가' 하는 표정으로 바라봤다고 회상했다.

후지모토에 따르면 김정일은 장남 정남, 차남 정철보다 막내 정은을 마음에 들어 했다. 정철·정은 형제의 이복형인 장남 정남의 경우 북한 고위 간부들의 파티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을 정도로 애초부터 후계자로 생각하지 않았고, 정철에 대해선 '계집애 같다'고 얘기했다는 것. 하지만 김정은은 '자신을 닮았다'며 만족스러워했다고 한다.

〈북한의 후계자 왜 김정은인가?〉
후지모토 겐지 지음 · 한유희 옮김
맥스미디어펴냄 · 1만5천원

김정일, '자신을 닮았다'며 김정은 만족스러워해

후지모토가 봤을 때도 정철·정은 형제의 성격은 판이했다. 정철은 얌전하고 공손했지만 정은은 공격적이고 날카로웠다. 어렸을 적 정철과 정은이 구슬놀이를 하다 그만 정철이 실수로 구슬을 놓치자 정은은 형의 얼굴에 구슬을 던져버렸다.

농구광인 김정은은 형 정철과 농구게임 코치로 경기를 할 때가 많았다. 그때마다 정은은 선수들에게 승패 원인을 따져 칭찬하고 야단쳤다. 그에 비해 정철은 경기가 끝나면 "수고, 해산!"하고 바로 돌아갔다.

후지모토는 김정은이 10대 중반 스위스 유학을 떠난 것을 계기로 북한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다고 보고 있다. 2000년 8월 원산에서 평양으로 향하는 전용열차 안에서 김정은과 5시간 동안 깊은 대화를 나눴는데 김정은이 북한의 물자부족을 염려하며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성공 소식에 대해 무척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다. 김정은의 이야기를 들으며 후지모토는 김정은이 장차 북한의 중추 역할을 맡게 될 것을 확신했다.

책에선 북한의 '로열 패밀리' 김정일 일가의 삶도 공개됐다. 김정일이 안전상 이유로 영화관, 공연 무대 등 호화시설이 갖춰진 전국 10여 곳의 초대소를 돌아다니며 생활하고 술을 좋아해 사람들에게 술내기를 부쳐 미화를 상금으로 건다는 등 북한 인민들의 실상과 전혀 다른 그들만의 일상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G

글 · 김민지 기자

행복의 향기

구성 | 권우영
그림 | 안종만

나눔과 배려의 향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러스트 · 이우정

그립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족'

우리가 행복해지는 첫 번째 요소는 돈이 아니다. 가족이다. 물질적인 풍요로움보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가족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에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가족의 소중함을 지키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고 그 아이들이 또 건강한 가족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출간된 〈가족, 당신이 고맙습니다〉는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살아온 가족과 관련된 소중한 추억을 되돌아보게 만든다.

이 책은 우리 시대 대표 작가로 불리는 소설가 박완서 씨와 시인 안도현, 문태준 씨 등이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진솔하게 써낸 가족 에세이다. 특히 작가들은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뒀던 가족에 관한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담담히 서술해 더욱 가슴에 와 닿는다.

이렇듯 가족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작가들이 쓴 스무 편의 이야기는 가족의 의미가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 시대에 부모와 자식 간의 의미를 다시 되새기게 만들고 곁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운다.

작가 박완서 씨는 '우리 엄마 초상'에서 당신이 못다 이룬 꿈을 딸이 이루길 바라며 기대하셨던 자신의 어머니를 회상했다. 그의 글을 읽다 보면 자식에 대한 기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부모님을 떠올리게 한다.

작가 공애린 씨는 베란다 정원을 가꾸는 어머니의 모습을 담담히 적었다. 이제 팔순의 노파가 돼 자신의 이름을 따 '점순이네 정원'이라는 베란다 정원을 갖게 된 어머니의 모습에서 소녀 같은 순수함을 발견한다.

시인 안도현 씨는 '가족' 하면 어릴 적 큰집 안방을 떠올렸다. 그는 '큰집 안방이 그립다'에서 그에게 안방은 집안의 대소사를 논의하던 공간이자 사촌 누나들의 웃음소리가 새어 나오던 따뜻하고 포근한 곳이었다고 회상했다.

이처럼 문인들이 써내려간 부모님, 가족 이야기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더 애틋하고 처연하게 다가온다. 바로 내 가족 이야기처럼 다가오는 것이다.

책을 읽다 보면 작가들의 용기가 느껴진다. 가족이라는 단어에 담긴 그들만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가 들려서다. 굳이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가족이기에 다 알고 보듬는 마음이 묻어난다.

작가들의 섬세한 감성과 필치로 그려낸 글을 읽다 보면 지금 멀리 떨어져 있거나 바로 곁에 있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고마움이 더해진다. 가족의 소중함을 알지만 표현하지 못하고 사는 우리 시대의 모든 딸과 아들 그리고 부모들이 꼭 한 번 읽어봐야 할 에세이다. G

글 · 박은주(국립중앙도서관 사서)

〈가족, 당신이 고맙습니다〉

박완서, 안도현 외 지음 / 중앙books 펴냄 / 1만1천원

배려

글과 그림 · 최영순

북미 인디언의 전통적인 인사말은 이것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Culture

중국 명·청시대 회화 어렵다고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명청회화〉展

국립중앙박물관은 봉건왕조인 명·청시대의 서화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명청회화〉전을 열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명·청시대 회화 작품은 중국 미술사에 등장하는 주요 화가와 화파를 망라하고 있는 만큼 전시를 통해 당대 회화의 흐름과 시대정신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됐다. '명대회화' 부문에서는 명대의 궁정회화인 절파(浙派)와 직업화, 오파(吳派)와 문인화, 동기창(董其昌), 남북종론(南北宗論) 등 명대 회화를 대표하는 4개 화풍을 소주제로 다뤄 각각의 대표화가와 대표작품을 보여준다.

'청대회화'에서는 오력(吳歷)과 정통파(正統派), 석도(石濤)와 개성파, 양주화파(揚州畵派), 해상화파(海上畵派) 등 4개 화풍을, '제3부 한국과의 교류'에서는 조선에서 활동한 맹영광 등 청대 화가의 작품과 동기창, 주지번 등 한국에 잘 알려진 명·청시대 화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전시 마지막 부분에서는 회화라는 평면 예술을 미디어아트로 재구성해 관람객과의 소통을 시도한다. 작품 속 생활상을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하는 한편, 그림 속 인물들이 대화를 나누고 청나라 건륭황제가 서화를 감상하고 있는 영상물을 제작해 관람객이 어려운 회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전시를 기획한 박성혜(44) 아시아부 학예연구사는 "국내 소장품으로만 기획된 최초의 명·청회화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미디어아트를 접목해 관람객들이 명·청시대 회화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

글 · 이윤진 기자

일시 2011년 1월 30일까지 **장소** 국립중앙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특별전시실
관람료 무료 **문의** 02-2077-9552 www.museum.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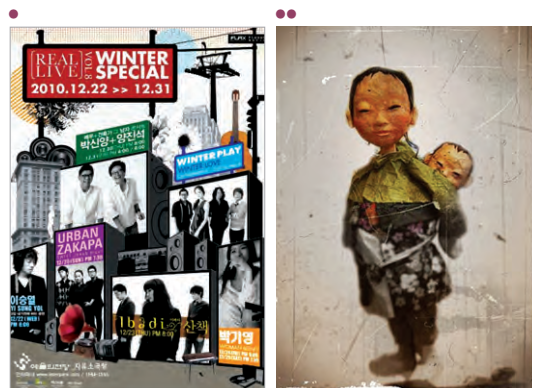
● 콘서트 〈리얼 라이브 – 윈터 스페셜〉

'라이브다운 라이브'를 지향하는 명품 공연인 '리얼 라이브'의 7회째 공연이다. 이바디, 박기영, 윈터플레이, 박신양&양진석 등 각기 다른 매력을 발산하는 6개의 콘서트가 엿새 동안 차례로 열린다.

일시 12월 22~31일 **장소** 서울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 **관람료** 1층(지정석) 5만5천원, 2층(자유석) 4만4천원, 3층(자유석) 2만2천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545-9174 www.sac.or.kr

●● 어린이 인형극 〈이불꽃〉

닥종이 인형과 애니메이션, 그림자극이 펼치는 환상적인 인형극 〈이불꽃〉은 부모 세대의 어린 시절을 배경으로 가족의 사랑을 그려내고 있다. 공연 후에는 염색놀이 체험활동에도 참가할 수 있다.

일시 2011년 1월 5~16일 **장소** 국립극장 별오름극장 **관람료** 전석 2만원(5세 이상 관람 가), 체험활동 1만원,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50퍼센트 할인
문의 02-2280-4115~6 www.ntok.go.kr

●
●●

경기도 파주 참게탕

강원도 정선 올챙이 국수

재미있는 올챙이 국수를 찾아서!

참게가 장원급제를 뜻하는 이유는 무얼까?

경북 안동 헛제삿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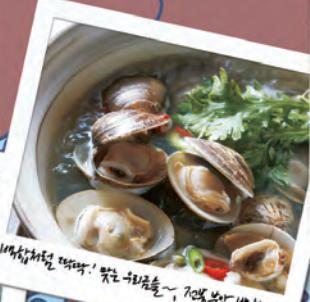
부부금슬의 상징, 백합을 맛보며~

제사는 안 지내고 헛제삿밥만 먹은 사연은??

고소한 전어 냄새가 솔솔~, 충남 서천 전어구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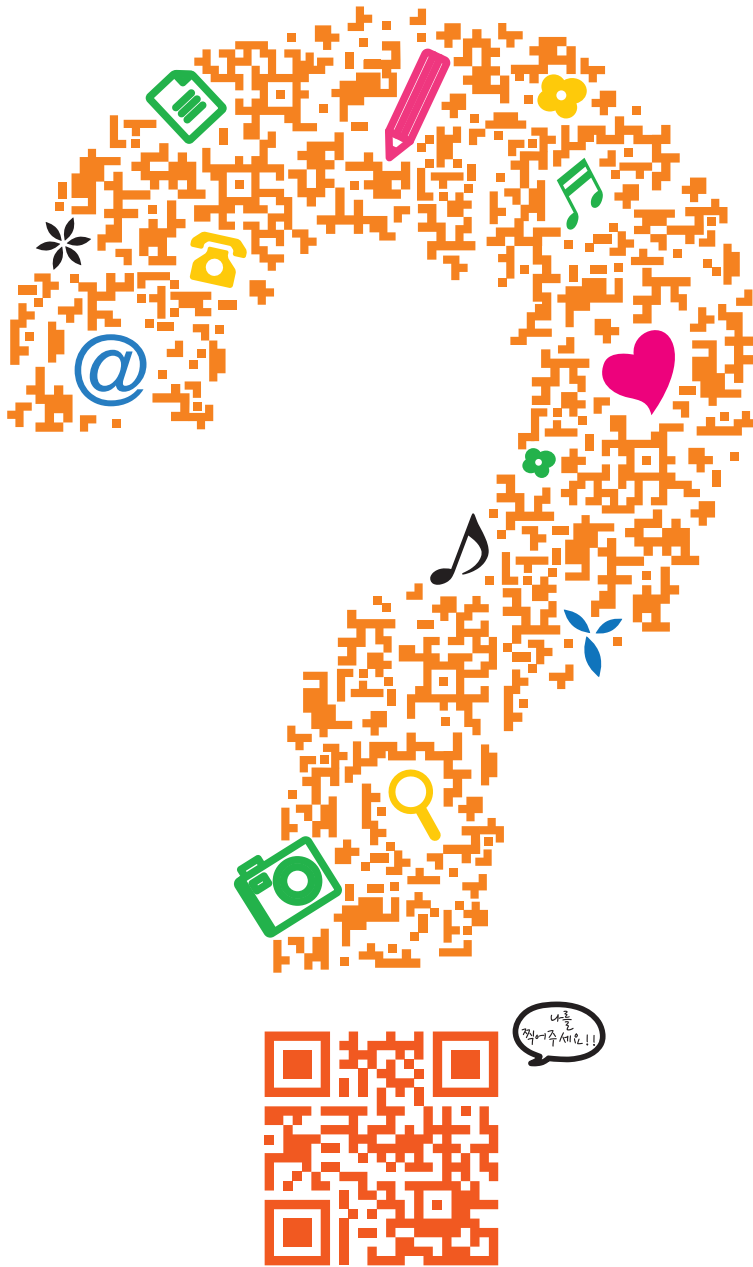
백합처럼 착착! 맞는 우리금슬~, 전북 부안 백합탕

지호도 죽순처럼 쑥쑥 자라길~

집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바로 그 전어!

다시 떠나세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숨겨진 맛과 이야기 속으로

대한민국 구석구석에는 맛있는 음식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떠나세요! 숨겨진 맛과 이야기를 찾아!

나를 찍어주세요!!

어디로 간거죠?

문화체육관광부가 광화문에서 사라졌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간거죠??

지금 QR코드를 통해 모바일 페이지로 들어오면 청사이전에 대한 정보와 역사 그리고 푸짐한 이벤트가 진행중 입니다.